月刊 등불

www.tongdosa.or.kr

월간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지입니다.

TONGDOSA
영축총림 통도사

FEBRUARY 2016
Monthly Magazine vol. 411

글. 사진
통도사 성보박물관

통도사 전경도
通度寺 全景圖

대한제국 1900년경

종이위에 채색 / 93.8×67.3

조감도 형식으로 표현하였는데, 각기 사면을 시점視點으로 보고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영축산의 형태를 거의 정사각형으로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계곡이나 수목에 이르기까지 규격적으로 처리된 것이 주목된다.

전각의 배치는 실제모습과 가까우나 전각과 암자의 명칭을 적색으로 기록한 것은 그림이 제작된 이후 추가된 기록으로 보인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번지 TEL. 055-382-1001 FAX. 055-384-0030

丙申年

병신년 정초기도

적멸보궁을 모시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병신년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의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과 신중님의 가피와 옹호를 발원하는 정초기도와 신중기도를 봉행하오니 수희동참하시어 서원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보궁기도 / 2월 8일~2월 14일

입 재 : 2월 8일 (음력 1월 1일) 월요일, 10시
회 향 : 2월 14일 (음력 1월 7일) 일요일, 10시
동참금 : 5 만원

신중기도 / 2월 14일~2월 16일

입 재 : 2월 14일 (음력 1월 7일) 일요일, 10시
회 향 : 2월 16일 (음력 1월 9일) 화요일, 10시
동참금 : 3 만원

●장 소 : 설법전
●접 수 처 : 화엄전 055-381-1288
FAX 055-372-7010
●문 의 처 : 종무소 055-382-7182
●차량안내 : 온천장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오전 8시~9시 운행

영축총림 통도사

TONGDOSA

통도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입 문 반

불교입문, 천수경

오전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2:00
오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01:00 ~ 03:00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12:00

■ 본 과 반 / 입문반 수료자 대상

불교개론, 부처님 생애

수요반 : 매주 수요일 오후 01:00 ~ 03:00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01:00 ~ 03:00
졸업조건 :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졸업 후 포교사 고시 응시 가능

■ 경 전 반

보현행원품 / 도암스님
법화경 / 신공스님
우바새계경/ 덕문스님

매주 목요일 오후 01:00 ~ 03:00
매주 금요일 오후 01:00 ~ 03:00
매주 토요일 오후 02:00 ~ 04:00

- **입 학 식 :** 2016년 3월 2일(수),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
- **접수기간 :** 2016년 2월 말까지(선착순 100명 마감)
- **구비서류 :** 사진 2매(3*4cm), 입학원서(통도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종무소 배부)
- **수 업 료 :** 25만원(1년 과정), 교재비 별도
- **문　　의 :** 종무소 불교대학 담당 / ☎ 055.384.8380, 055.382.7182
- **참　　고 :** 최소 30명 이상 수업진행
  두 강좌 이상 수업 신청 시 할인혜택
  수업료 환불은 개강 후 15일 이전까지 가능

목차

02 **통도사 성보**

통도사 전경도通度寺 全景圖

08 **방장스님 휘호**

細似隣虛析 (세사린허석) 輕如蝶舞初 (경여접무초)

10 **선어록 강좌**

서암 화상의 주인공

14 **마음으로 읽는 불교문화**

비보秘寶

16 **새롭게 읽는 삼국유사**

가야의 첫 황후는 인도공주님 아유타야국 허황옥

20 **향성**

삼보일배

22 **등불화보**

벽안당 법인대종사 추모다례 엄수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회향

성도재일 철야정진기도 봉행

통도사, 직접 만든 떡과 두부로 사중살림 도모

통도사 • 진주시 • 진주문화예술재단 MOU체결

27 **산문 밖 이야기**

2월의 이야기 '아버지'

36 **사찰 속 공양간을 가다**

송광사 인월암으로

41 **그림으로 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42 **새롭게 조명한 인도불교사**

인도 불교의 역사 _인도사상의 특징과 흐름(2)

48 **등불의 세계여행**

1년간의 여행, 일본

53 **경전 산책**

재가 계율의 보고寶庫 -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56 **영축환경칼럼**

눈 푸른 스님들

48

59

60

60 **말사 탐방**
한국의 3대 의병사찰 울산 신흥사를 찾아서

64 **산하기관_** 유치원소식
2015년 통도사유치원 별들, 별빛예술제를 만들다

66 **원상스님이 들려주는 '이 공양'**
늙은 호박죽

68 **건강칼럼**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한습寒濕을 제거 하는 쑥

70 **영축소식**
통도사 / 통도사 연수원 / 박물관 / 자비원

74 **학인마당**
졸업에 즈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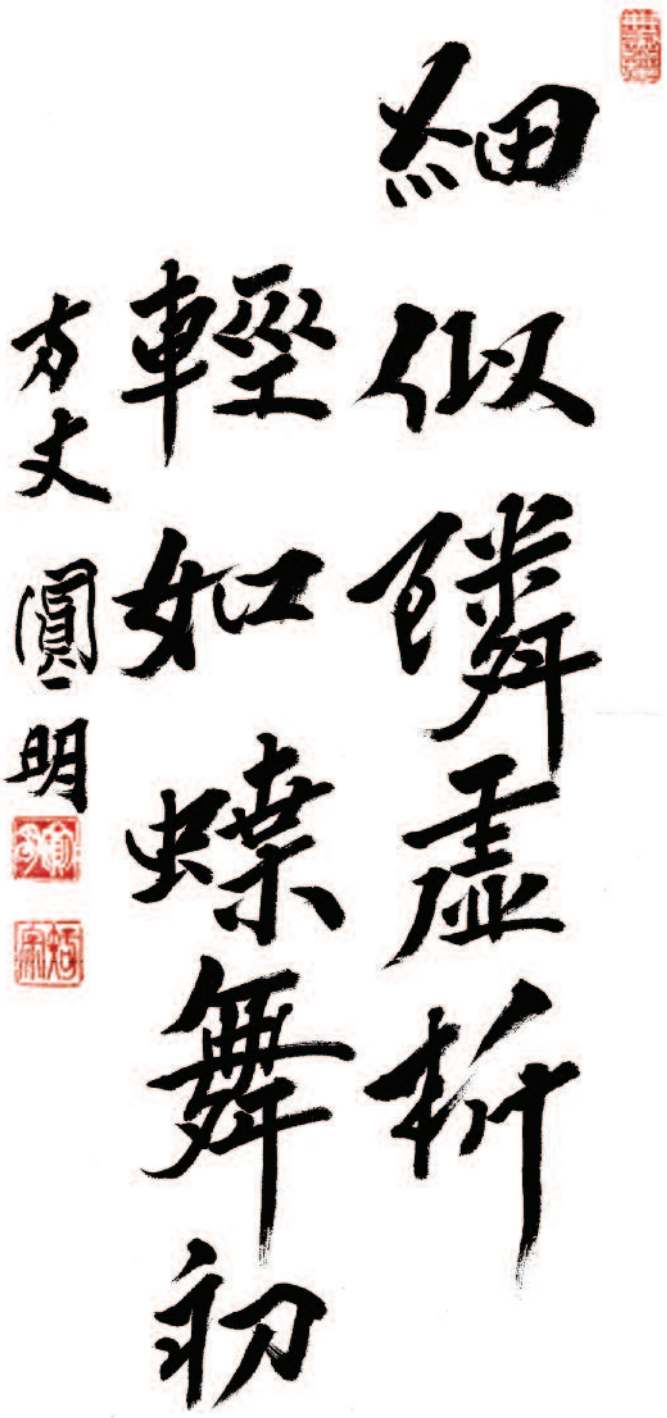
78 **편집후기**

밝음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무명 벗고 지혜 얻을 그 노정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이곳,
적멸보궁 통도사의 새벽입니다.

월간 등불 1990년 9월 28일 등록. 2016년 2월 2일 발행(통권411호)
발행인 겸 편집인 향전 영배
편집주간 도문
편집장 선본
편집위원 진각 정안 진응 정진
회계 안은경
발행처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 384-8380 팩스 055) 382-7196
취재 · 사진 김윤희 김정은
기획 ·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18 동광빌딩 2F
전화 051) 255-0263 팩스 051) 255-0953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통도사 신도님들께 매월 배달되는 영축총림의 사보입니다.

붓글씨
원명지종대종사 영축총림 방장



細似隣虛析 (세사린허석)
輕如蝶舞初 (경여접무초)

수행자여!
섬세하고 예리하기는
인허의 작은 먼지마저
쪼개듯 해야 하고
경쾌하고 군더더기 없기는
꽃잎에 앉았던 나비가
날아오르듯 해야 하느니.
섬세하여라.
경쾌하여라.

글
법산 통도사 선덕. 동국대 불교대학 명예교수

禪語錄

서암 화상의 주인공

無門關 第 12則 巖喚主人

瑞巖彦和尙 每日自喚主人公 復自應諾, 乃云 惺惺著, 諾.
他時異日 莫受人瞞, 諾諾.

無門曰

瑞巖老子 自買自賣 弄出許多神頭鬼面, 何故?
聻 一箇喚底 一箇應底一箇惺惺底 一箇不受人瞞底 認著 依前還不是.
若也傚他 總是野狐見解.

頌 曰

學道之人不識眞 只爲從前認識神.
無量劫來生死本 癡人喚作本來人.

번역

서암사언瑞巖師彦 화상이 매일 자기 자신에게 '주인공' 하고 부르고,
다시 스스로 '예'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정신 차려라'하고, '예'하고 대답하였다.
'다른 날 다른 때(언제)라도 남에게 속지 마라'하고, '예예'하며 대답하였다.

무문스님께서 평하여 말하기를,
서암 노스님이 스스로 팔고 스스로 사고 하는 것이 마치 허다한 귀신장난 놀음하는
것 같네.

왜 그럴까?
그렇지. 한 번은 부르고, 한 번은 대답하고, 한 번은 정신차려라 하고, 한 번은 남에게 속지마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인식하여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를 모방하면 모두가 여우같은 생각이리라.

게송으로 노래하다.

도를 닦는 사람이 참된 것을 모르고
다만 종전의 인식된 것만 아는구나.
무량겁을 지나오며 생사의 근본이 되었거늘
어리석은 사람이 본래 인으로 부르고 있네.

해설

서암사언瑞巖師彦 화상은 덕산德山 선사의 법을 이은 암두전활巖頭全豁 : 827~887 선사의 법을 계승하였다. 서암 화상은 천성이 우둔하여 이른바 멍텅구리인지 천치인지 모를 정도로 멍청하여 도를 깨달았는지 바보인지 모를 사람이었다고 한다.
서암 화상의 '주인공' 부르는 이 화두가 1700여 공안 중에서 무문선사가 선별하여 뽑아 제시한 48칙에 들어 있다는 것은 분명 그 화두의 위력과 참구하여 깨달을 수 있는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별 효능이 없었다면 『조당집』과 『전등록』, 『오등회원』 등의 눈 푸른 조사들의 어록에 등재되어 선수행 납자들의 등불이 될 수 있겠는가?
서암 화상은 스승이신 암두 선사가 가르쳐 주신 '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대·소변 보는 곳에 본연의 진리가 항상 현전하고 있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발밑을 잘 살펴보라.'는 말씀을 절체 절명의 과제로 삼아 자성을 관조한 것이다.
남이 보기는 마치 바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서암 화상은 어느 한 찰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의 '주인공'을 간절히 참구한 결과 자기 자성의 근본인 청정무구한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을 찾아 부르면 스스로 '예'하고 대답하고, '정신 차려라'하고 '예'하고 대답하고, '남에게 속지 마라'하고 '예예'하고 대답하며 신심을 다지고 화두를 참구하여 '확철대오'하였을 것이니, 이 얼마나 통쾌하고 위대한 대선지식의 쾌거가 아니리요.

그런데 무문선사가 이 공안公案을 제시하면서 논평하는 말에 왜 '서암 노스님이 스스로 팔고 스스로 사고 하는 것이 마치 허다한 귀신장난 놀음하는 것 같네.'하고 내리쳐 버렸을까? 속된 말로 '귀신 잡밥 갈라 먹는 소리'라고 사정없이 까버리고는 만약 이대로 모방하면 여우같은 견해에 빠져버릴 것이라고 간절히 경고하였다.

무문 선사는 게송에서도 도道를 닦는 수행자가 무시겁래의 업습業習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참 나의 본성인 줄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경책하고 있다.

그렇다. 이대로 모방하여 참구한다면 활구活句가 아닌 사구死句라는 의미이다. 형식이나 습관상으로 제시된 문장이나 어구를 아무리 반복하여 참구한다 해도 은산철벽 같은 습관적 업業을 타파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사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화두로 참구하는 일상적인 '내'가 아니라 '나'라는 철벽 속에 가려져 있는 '참 나'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참구가 활구라는 것이다. 이 일은 생사대사를 끝장내는 일이기 때문에 말로 설득하거나 이해하거나 논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코 '나'라는 이 실체가 죽어 없어져 버려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겁내거나 피할 것도 없다. 절대로 두려운 상대가 아니다. 냅다 붙어 깨어져 터질 때까지 내리치면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이 역대 눈 밝은 선사들의 경험담이다.

주인공, 어디 있나?
썩을 송장 끌고 다니는 놈한테 물어보나?
연뿌리에서 연꽃 찾기로세.

2016년 01월

통도사 홈페이지 새단장

www.tongdosa.or.kr

2016년 01월
통도사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이제 모바일과 테블릿에서도
통도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TONGDO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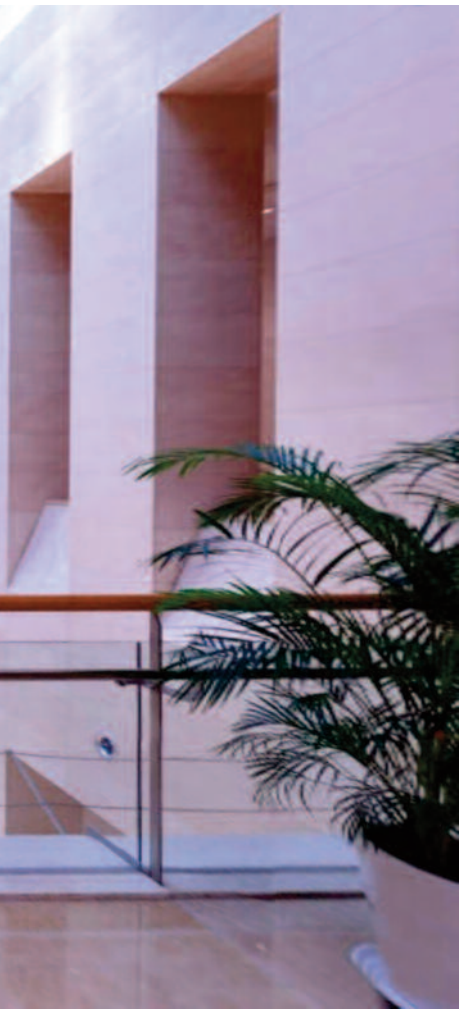
글
도일스님 전. 송광사 율원장

비보 秘寶

일본에는 비보秘寶라고 불리는 문화재들이 있다. 주로 불교와 관련된 이 문화재들은 불상이나 불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다.

비보秘寶라는 글자 그대로 이 문화재들은 비밀스럽게 다루어지는 보물로서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은 몇 년 만에 혹은 몇 십년 만에 공개되기도 하고 몇 백년 만에 일반에게 관람이 허용되는 비보秘寶도 많다.

나아가서 아예 영원히 공개하지 않는 비보秘寶까지도 있다. 이 비보秘寶들을 보려면 특별한 시기에 공개를 허용하는 때가 아니면 전혀 볼 수가 없으니 공개하는 날이 되면 이를 보기 위한 인파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자신의 짧은 생에 거룩한 비보를 만나는 일은 실로 얻기 어려운 일이어서 몇 시간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참배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기다린다.



일생에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의 만남을 차 마시는 사람들은 일기일회一期一會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도 뛰어난 것이 많이 있지만 일본처럼 비보秘寶라고 불릴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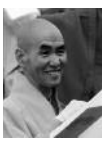
일본이 비보秘寶를 정한 까닭은 유물의 보존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귀함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돈만 되면 무엇이든 상업화 하려는 마음이나 문화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국립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많은 학자와 스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출장 전시에 보낸 것은 우리가 문화재를 어떻게 생각하며 대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말로는 이 불상의 가치가 일본 광륭사의 미륵상에 비견된다고 떠들면서 그 다루는 방식은 현저히 다르다.

프랑스 루부르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를 다른 나라에 빌려 주겠는가? 혹은 영국의 박물관에 소장된 국보급 유물을 다른 나라에 쉽게 전시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은 너무나 명확하다. 문화재는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는 관리할 길이 없다.

오래된 탱화를 박물관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실물크기의 사진을 봉인하고 있는 절들이 허다하다. 이것은 보존을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세계 어느 문화재도 이런 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차라리 정밀하게 묘사한 복제품을 두는 경우는 있다. 석굴암 불상이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같은 조각품으로 관람객에게 공개하자는 일부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도 조각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조성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로마 바티칸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도 늘 보존 문제가 대두되지만 꼭 같은 것을 만들어 관람하게 하자는 주장이 없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비보秘寶는 늘 참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해도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쯤 그런 비보를 가슴에 넣을 수 있을까?



도일 스님

1973년 양산 미타암에 입산, 1975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7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지난 동안거까지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을 지낸 스님은 통도사 취운선원, 부산 보광사 등에서 운수납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은 4월3일부터 매월 음력 15일마다 부산 당리동 관음사에서 정토법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
정진원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가야의 첫 황후는

인도공주님
아유타야국 허황옥

연상연하 커플의 원조,
당당한 그녀의 카리스마

1989년 인도에 갔었다. 그때만 해도 인도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특히 여성 여행자는 출입국 담당자조차 처음 봤다고 하였다. 지금은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 다음으로 한국 사람이 많다는 우스개가 생길 정도이다. 우리의 급속한 세계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이다. 그런데 그 인도에서 무려 2천년전인 서기 48년에 우리나라 가야로 시집 온 인도 공주가 있었다. 아유타야국 허황옥, 지금의 김해 지방인 가락국에 나타난 그녀는 남달랐다. 카리스마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대 어떤 개국의 시조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위풍당당하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세대까지 만연했던 결혼 풍속이었다가 요즘 다시 하나의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연상연하 커플의 시조모이기도 하다. 남편 김수로보다 열 살 연상이니 21세기 현대 커플과 비교해도 절대 손색이 없다.

이제 삼국유사에만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기록을 더듬어 황옥과 수로가 살던 가야라는 나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가락국은 가야라고도 불리는데 삼국유사에는 '가락국기'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 나라의 시조인 김수로왕은 서기 42년 계욕일(삼월 일일 또는 삼월 삼짇날)에 알에서 태어난다. 그리고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구척장신으로 자란다. 토착세력인 9간들은 그를 왕으로 삼고 48년에, 그러니까 김수로의 나이 여섯 살 때 저들의 딸 중에서 배필을 삼고자 했지만, 수로는 내가 하늘의 뜻으로 가야에 내려왔듯이 나에게 맞는 배필도 하늘이 정해 줄거라 거절하였다.

과연 미리 그 배필과 연락을 주고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틀림없던 그해 서기 48년 7월 27일, 아유타야국의 공주 허황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납신다. 수로는 우선 그의 최측근 유천간留天干에게 배와 말을 준비시켜 망산도로 가서 기다리게 한다. 또한 측근 신귀간神鬼干에게는 승점으로 가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다 서쪽에서 붉은 돛배가 붉은 기를 휘날리며 북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것을 본 유천간이 먼저 봉화를 올리자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육지로 뛰어 내렸다. 신귀간은 그 사실을 수로왕께 아뢰니 남은 구간들까지 목란으로 만든 키와 계수나무 노를 저어 허황옥 일행을 맞이하게 한다. 궁궐로 안내하려는 그들을 향한 허황옥의 일갈이 멋지다.

'내 어찌 그대들을 처음 보는데 경솔히 따라 가리오'

그 말을 전해 들은 수로는 그제서야 아뿔싸, 그의 불찰을 만회하기 위하여 부랴부랴 신하들을 데리고 대궐 아래 임시로 가설한 천막 영빈관이자 초례청이라 할 허니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

허황옥의 거침없고 예사롭지 않은 거동 2탄을 볼짝시면, 황옥은 망산도 밖 별포 나루에 내려 언덕에 올라가 잠시 쉬더니 그녀가 입고 있던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을 드리는 퍼포먼스를 펼친다는 것. 이에 대한 해석과 의미는 인도 처녀가 결혼을 할 때의 풍습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김해허씨 종친회 홈

피참조), 그것을 왜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드리는가는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의 경호실장과 비서실장격인 신보와 조광 부부와 노비 20명을 비롯한 금수능라, 금은주옥, 갖은 패물을 안고 수로에게 나아간다. 수로는 버선발로 맞아 영빈관에 모신다.

난초음료와 혜초 술로 황옥을 대접하고 화려한 무늬로 짠 잠자리며 준비한 옷과 비단보화로 감싸주는 수로. 호위무사로 지키게 하고서야 그야말로 국제적이고 우주적인 인도와 하늘에서 내려온 커플이 침전에 든다. 둘만이 있게 되자 강단있는 허황옥의 자기 소개 시작!

'나는 아유타야국의 공주, 성은 허씨요 이름은 황옥인데 나이는 방년 16세입니다.'

수로보다 10살 많은 연상연하 커플이라기보다, 꼬마신랑과 이팔청춘 꽃다운 처녀의 만남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이어지는 수로와 운명적 만남에 관한 황옥의 히스토리!

'두 달전 5월 그러니까 48년 5월에 우리 부모는 같은 날 똑같이 옥황상제의 꿈을 꾸었는데, 상제께서 "그대의 딸을 수로와 배필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답니다.'

이 말을 들은 키만 구척장신, 어린 꼬마신랑 수로도 질세라 대꾸한다.

'나는 나면서부터 성스러운 존재, 장가들라는 신하들의 성화에도 그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오. 공주가 오셔서 아주 행복합니다.'

각본대로 마치 짠 것처럼 둘은 7월 28일 만나 혼인하고 꿈같은 영빈관 2박 3일의 허니문을 마친다. 그리고 8월 1일 정오 즈음 수로와 황옥은 궁궐에 나란히 입장했다고 기록한다. 이렇게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또 있을까. 가락국기는 특히 삼국유사 안에서도 정확한 연대기를 자랑한다. 신행을 마치고 궁궐에 들어오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안일까. 가야인들의 역사를 대하는 정확한 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김수로왕릉의 쌍어문양

이제 배필을 얻은 수로는 수신제가修身齊家하였으니 치국治國할 차례, 나라의 직제개편에 나선다. 우선 촌스러운 구간의 이름 아도我刀 여도汝刀 피도彼刀 등의 칼 도刀 자부터 고상하게 아궁我躬 여해汝諧 피장彼藏으로 바꾼다. 신라와 주나라, 한나라를 벤치마킹하여 벼슬의 직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로와 황옥은 함께 애민 정치를 베푼다. 이 정치를 허황옥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도 위엄이 서고 교화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수로와 황옥의 다스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로가 하늘이면 황옥은 땅, 수로가 해라면 황옥은 달, 수로가 양이라면 황옥은 음'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남존여비나 남성 중심의 상하 관념이나 하나는 위대하고 하나는 보잘 것 없다는 비유가 아니다. 하늘은 땅이라는 경계가 있으므로 비로소 하늘이 될 수 있고, 달이 없으면 해도 그 빛을 비교할 상대가 없어지는 법이다. 그리하여 음양의 이치가 생긴 것이요 서로의 짝이 있어야 각자를 더욱 빛나게 하는 상생의 역할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또 있다. 허황옥의 역할은 마치 하나라를 흥하게 만든 우왕의 부인 도산씨와 같았고, 요임금의 딸들이 순임금과 결혼해 교씨를 흥하게 한 공로와 같다고 하였다. 황옥이 있어 가야라는 나라가 흥하고 자손을 이어가야 왕조가 계승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여왕노릇을 잘 하던 황옥은 드디어 곰에 대한 태몽을 꾸고 48년 아들 거등공을 낳는다. 가야에서도 단군의 출생처럼 곰토템은 중요했던 모양이다. 하나라 우왕의 아버지 곤도 죽어서 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에 곰이 상징하는 위상을 가늠할 만하다. 그 후 허황옥은 자녀의 수가 10남2녀설, 9남설, 7남설 분분하지만 그 중 두 아들을 자신의 성인 김해 허씨로 삼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김수로왕의 후손인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이성동본, 성은 달라도 한 자손이므로 동성동본과 같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하나, 허황옥의 아들들에 대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일곱 아들이 모두 출가해 성불했다는 지리산 칠불암의 주인공 일화이다.

황옥은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왕노릇하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낸 후 189년 157세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하니 황옥의 출생을 되짚어 계산하면 서기 32년생이다. 사람들은 서거한 황옥을 수로왕이 처음 나타난 구지봉에 장사지내고 자식처럼 사랑했던 백성들은 황후를 기려 그녀와 관련된 유적지에 이름을 붙인다.

황후가 배에서 내린 도두마을은 임금님 오신 포구 주포촌主浦村으로 이름지었다. 황후를 뜻하는 '후포촌后浦村'이 아님에 유의하시라. 또 허황후가 처음 붉은 돛대 붉은 깃발 펄럭이며 도착한 바닷가는 '기출변旗出邊'. 나랏 사람들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추앙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 다음호에 계속

정진원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문학박사(석보상절 주제)
철학박사(삼국유사 주제)

글. 그림
수안스님 문수원

삼보일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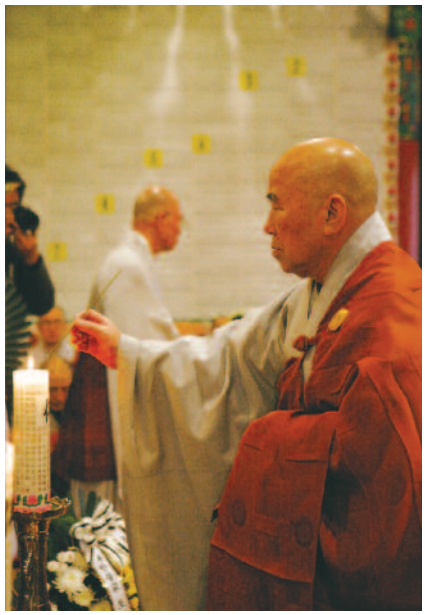
화엄경 법문은 큰 감동이다.
행동으로 옮기기 까지는
선근종자 싹터 꽃피고 열매 맺었다.

천하 제일명당 명산
영축산문 무풍교에서
좌로 통도천 '川'
우로 무풍한송
나무석가모니불 세 걸음에 큰절 한 번 하는
삼보일배 용맹정진기도
혼자보다 대중들과 정진함은
큰 힘을 얻는다.

솔바람 소리
냇물 소리
은은한 달빛
남여 도반들,
적멸보궁 향한 삼보일배
맑고 밝은 서기광명
정진대중 함께
영축총림 통도사의
살아숨쉬는 힘이고 빛이리.

“자비로 살다 가신 스님, 덕화로 다시 오소서”

벽안당 법인대종사 추모다례 엄수



1월 4일 오전, 설법전에서는 벽안 노스님의 제 29주기 추모다례가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추모다례에는 방장 원명지종대종사와 문도대표 눌암스님을 위시한 문도 스님들, 서운암 성파대종사, 주지 영배스님과 사중의 소임 스님들과 보광선원, 극락호국선원, 무위선원 등 선방의 수좌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문도대표 눌암스님의 헌다례에 이어 방장스님의 헌다로 시작된 이날 추모다례에서 옥련암 감원 법선스님은 “여느 해 보다 포근한 가운데 스님의 29주기를 맞았습니다. 스님의 생전 성정은 이렇듯 포근하신 분이셨으며 수행자로서의 면모는 대쪽 같고 칼날 같은 성정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 저희이기에 스님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모든 참석 대중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전 문도를 대신하여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설법전에서 추모다례를 마친 전 문도들은 부도전의 스님 부도탑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예를 갖추었고 청정승가의 모습을 구현하시고 가신 스님의 삶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바세계 장엄한 화엄 법석의 진수

1월 9일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회향

영축산중을 화엄 법문으로 장엄한 화엄의 대법회가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마침내 회향을 맞았습니다. 지난 1월 9일 토요일,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영배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화엄산림 회향 대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화엄산림법회는 지난해 12월11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지종 대종사의 입재 법문이 그 시작을 알렸고, 한 달간 서른 분의 고승대덕 스님들이 감로 법문을 설하였습니다

이날 회향법회는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시불공, 회향법문, 시식불공, 위패 소대봉송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입법계품을 설하는 법사로서 법상에 오른 주지 영배스님은 “한 달간 화엄의 세계에 머무르며 탐진치 삼독이 다 소멸되고 마음속에 있던 액난이 다 소멸되고 기도에 임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한 달 전의 여러분이 아니실 겁니다. 모두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십니다”며 법회에 참석한 공덕을 일러주셨으며, “이 공덕을 주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더 큰 공덕을 지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화두 붙들고
참선 삼매경

성도재일 철야정진기도 봉행

1월 17일(음력 12월 8일)은 지금으로부터 256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참선 끝에 정각을 이룬 날이었습니다. 올해 성도재일을 하루 앞둔 16일 토요일 저녁, 500여 명의 불자님들이 통도사 설법전을 찾아 깨달음을 구하는 철야정진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저녁 9시 참선 수행에 앞서 교무국장 진응스님으로부터 '참선이론에 대한 강의'를 경청하였으며 2시간의 참선, 죽공양,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참회 절 정진으로 철야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불제자들에게 '성도재일'은 무상보리를 이룩하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참불자요 참수행자임을 되새겨야 하는 귀한 하루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쌀로 떡 찌고, 우리 콩으로 두부 만들지요.

통도사, 직접 만든 떡과 두부로 사중살림 도모

'불전에 올린 공양물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은 불자들과 신도님들 누구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덕목입니다.

바로 그런 지중한 공양물을 다시 불자들의 먹거리로 재탄생시키는 일이 우리 통도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주차장 옆 대중음식점인 다정각 옆에 세워진 〈조포정造泡亭〉이 그것입니다. 〈조포정〉의 개원은 지난 1월 8일 오전 8시, 주지 영배스님과 총무국장 도문스님 등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오른 시루떡을 커팅하고 네모가 반듯한 두부를 자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포정〉에서는 매일 이른 아침시간마다 불단에 올려질 떡과 대중들이 먹을 떡을 하게 되며 사찰에서 대중들이 가장 빈번하게 먹게 되는 두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사중의 공양미와 경내 경작지에서 출하된 콩을 이용해 두부를 만들어 대중의 영양식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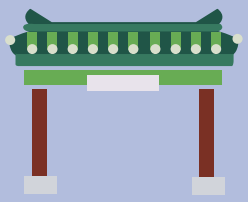
아침마다 떡과 두부를 만드는 일은 종무원 이채원씨가 도맡아 하게 되는데 대중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채원씨는 "워낙 사중에서 소비되는 떡과 두부의 양이 많다보니 일일이 사서 먹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시루떡과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대중에게 보급을 하니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분은 있으므로 여타 종류의 떡들은 역시 주문을 하여 의뢰로 만들어집니다.

두부는 쉬어지기가 쉬운 음식인데다 워낙 소비가 많으므로 영양가 많은 두부를 손수 만들어 보급을 하니 아주 좋은 일이구요." 라며 소회를 들려주었습니다. 〈조포정〉의 떡과 두부는 판매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주 남강 물들인 연등, 통도사에서 만나다

통도사·진주시·진주문화예술재단 MOU체결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을 형형색색 물들이는 유등을 통도사 도량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통도사는 지난 1월 13일 오후 2시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진주시(시장 이창희), (재)진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용호)과 문화축제 교류를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통도사는 향후 진주시로부터 불교문화와 연관깊은 중형등 20개, 소형등 30개를 연등축제 및 문화축제를 장엄하기 위해 대여하게 됩니다. 또한 사보 「등불」에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홍보하게 되며, 등燈 구매 및 기술개발에도 협력하게 됩니다.
이번 문화축제 교류 MOU체결은 진주시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유등을 대여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써, 통도사의 문화축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시너지 효과 및 동반성장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주지 영배스님은 "진주의 유등축제는 이 고장의 역사적 배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의미 깊은 행사다. 이와같은 유등을 통도사 문화축제의 현장에 장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문화적 교류를 통해 진주시와 불보종찰 통도사가 함께 문화적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월의 이야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언제나 산 이었다.
말 없이 머금고 앉아 천하를 굽어보는
아주 넉넉한 산.

신은 세상에 두루 존재할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어줬다고 했던가.
그런 어머니를 만들어 준 최초의
출발이야말로 아버지이다.
생명이라는 존재에 있어
이유를 만들어 준 대상은
바로 아버지이다.

그 존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㚔은
분명 아버지이며 다시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서 기인한다.

어둠 속에서,
혹은 거친 곳에서
밝음과 부드러움, 따뜻함을
만들어주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은
오늘도 멈춤이 없다.

그렇듯
언제나 엄마에 떠밀려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당신이 실은 먼저이고
우선임을 고백하고자 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글
정호승 시인

그리운 아버지의 손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해 전 가을. 방안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에게 창밖에 가을이 왔음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얼른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산책하던 아파트 뜰로 나가 단풍 든 왕벚나무 잎을 몇 개 주워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다.

"아버지, 지금 가을이에요. 이 낙엽 좀 보세요."

아버지가 단풍 든 낙엽을 힘없이 손에 쥐고 말없이 웃으셨다.

그날 낙엽 몇 장을 접시에 담아 아버지 머리맡에 놓아드리고 방을 나오면서 그날따라 왜 그리 슬펐는지 모른다.

나는 아버지가 걷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 참 많이 걱정했었다.

"아버지, 힘드시더라도 산책 많이 하세요.
나중에 못 걸으시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방에만 계세요?"
결국 그런 날은 오고 말았다. 휠체어에 앉아 계실 때만 해도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구상에서 임대한 환자용 침대에 누워 긴 투병생활이 시작된 뒤로는 창밖조차 바라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창밖을 궁금해 하셨다.
"밖에 비 오나?"
내가 방에 들어가면 곧잘 그렇게 물으셨다. 그러면 내가 그날의 날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곤 했는데 첫눈이 온 날은 좀 달랐다.
"아버지, 지금 눈 옵니다. 첫눈입니다, 첫눈!"
나도 모르게 들뜬 목소리를 내었다. 나는 마치 아버지와 마당에 나가 눈사람이라도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 같았다.
어릴 때 내가 만든 눈사람 뒤로 아버지가 서 있는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내심 그런 사진 속 풍경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밖에 눈 오나?"
약간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첫눈 내리는 바깥 풍경을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다.
얼른 밖에 나가 일부러 눈을 잔뜩 맞고 와서 "아버지, 눈 온 거 한번 보세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밖에 나가 한 움큼 눈을 뭉쳐와 아버지 손에 놓아드렸다.
"참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버지는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아버지와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 내리는 골목길을 걷고 싶었다.
신병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 보충대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였다. 뜻밖에 아버지가 대구에서 그 먼 춘천까지 면회를 오셨다.
넓은 연병장에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눈을 맞으며 연병장을 가로질러 부대 정문 앞까지 달려갔다.
"춥제?"
아버지가 코트 속에 넣어두었던 손을 꺼내 고된 훈련으로 거칠게 상한 내 손을 잡아주었다.
"배고프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면회소에서 아버지가 사주신 빵을 연달아 몇 개나 급히 먹으면서도 핑 도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주무시기 전에 꼭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셨다. 책상 위에 얹고 깍지를 낀 채 그 손에 턱을 괴고 기도하실 때가 많았다. 책상 아래로 손을 내려놓고 하실 때도 두 손을 꼭 마주 잡았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손은 늘 아름다웠다. 법정 스님께서 산문집 『버리고 떠나기』에서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을 기도하는 아버지의 손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제 낙엽을 쥐어드리던, 눈뭉치를 얹어드리던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 밤마다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손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오늘은 내 손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아버지의 손이 떠오른다. 아침마다 어린 내 손을 잡고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바래다주던 젊은 날의 멋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아버지의 손에 맞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나를 단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야단맞을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주먹이 된 아버지의 손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의 손은 항상 내 손을 잡기 위해, 나를 쓰다듬어주기 위해 존재했을 뿐이다.

이제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고 싶다. 아니, 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려야 했을 때 그만 잡아드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작 아들의 손을 잡지 못했다.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아들의 손이 되어주었고, 아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아들의 고단한 인생의 손이 되어주었는데 정작 아들인 나는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제 삶이라는 여행을 끝내고 죽음이라는 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떠나세요. 배고프시면 가끔 짜장면도 탕수육도 사 잡수시고요. 제가 곧 아버지 뒤를 따라갈 겁니다. 그때 반갑게 만나요."

나는 땅에 묻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내 손이 꼭 필요했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아픈 마음을 달래며 예전에 나팔꽃 꽃씨를 당신이 잡수시는 환약인 줄 알고 잡수시던 아버지를 보고 쓴 시 「나팔꽃」을 읽어본다.

한쪽 시력을 잃은 아버지
내가 무심코 식탁 위에 놓아둔
까만 나팔꽃 씨를
환약인 줄 알고 드셨다
아침마다 창가에
나팔꽃으로 피어나
자꾸 웃으시는 아버지
- 「나팔꽃」 전문

정호승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 졸업.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시집으로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별들은 따뜻하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밥값』 『여행』 등.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상화시인상 등 수상.

글
이춘호 영남일보 기자

아버지를 부탁해

#하나

남자가 남성을 거쳐 아버지가 되는 과정. 이 처절하고 기막힌 과정은 먼지 한 톨이 우주 자장권의 조화에 의해 지구가 되는 과정과 다를 바 없다. 오랜 세월 모르긴 해도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살았을 것 같다. 원시의 바다, 선캄브리아기의 삼엽충처럼 바다 밑을 기어 다녔을 것이다. 여자가 전제되지 않는 남자의 삶이란 자연의 연장에 불과했을 것이다. 남자 속에 여자가 내장돼 있었기 때문에 유성생식을 통해 자아분열 될 필요도 없었을 것 같다. 남자는 자신이 왜 남자였는지를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조물주가 남자 옆에 여자를 그리워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했던 것 같다.

#둘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났다. 조물주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틈을 삽입시킨 것이다. 자기 속에 또 다른 자기를 찾게 만들었다. 여자를 만난 남자는 또 다른 남자와 여자를 낳았다. 그 자식은 그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다. 자기한테만 맞는 여자를 갈망하는 순간 남자는 비로소 남성이 된다. 남자에서 남성이 된다는 건 지구에겐 희극이자 비극이었다. 남자로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허용되었다. 모든 게 다 가능했고 그 가능한 것은 곧 '완성'이었다. 그러니 굳이 이것에서 저것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필요도 없었다. 무엇을 만들 필요도 무엇이 될 이유도 없었다.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었다. 음陰과 양陽이 생기기 이전의 '태극太極'과 비슷한 형국이었다. 그 남자가 스스로에게 숙제거리로 문제를 낼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천지의 경제를 주관하시는 조물주가 남자의 몸속에 '변화變化'란 유전자를 세팅했다. 틈은 또 다른 변화의 힘이었다. 그 변화는 계절을 만들었고 그 계절로 인해 세상과 세월이 탄생하게 된다. 계절 속에는 살림과 죽임의 두 에너지가 혼융돼 있었다. 인간의 범주에 묶인 남성과 여성은 계절이란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자에서 벗어난 남성은 일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다. 먹지 않으면 죽었다. 죽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만 했다. 남자는 여자를 더욱더 책임져야만 했다. 그 '책임'이란 조건 위에 여자 역시 여성이 되었고 그 여성은 그 남성의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남성과 여성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버렸다.

#셋

그 족쇄 속에서 피어난 '꽃'이 있었다. 바로 '아버지'다. 남자와 남성은 결국 아버지란 꽃을 피우기 위해 존재한다. 수렵시대부터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의 절정부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는 남성과 남자로 가는 길이 완전하게 봉쇄된 삶을 살다갔다. 자아실현이 아니라 '가족실현'의 상징이었다. 가족은 곧 아버지의 출발역임과 동시에 도착역이었다. 아버지는 직업으로 끌고 어머니는 가사로 밀었다. 직장에서는 그믐달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집에 오면 보름달처럼 훤하게 밝아졌다. 집밖에서는 결빙됐고 멍이 들었지만 집에 들어오면 해빙이 되고 미소가 피어났다. 30년 남짓한 노동의 세월에서 밀려난 아버지가 예순이 될 즈음 그 자식도 그 아버지처럼 노동의 대열로 내몰렸다. 돈 벌기 어렵고 출세하기 어려움을 갓 체득한 자식은 환갑상에 앉은 아버지를 위해 큰절을 올렸다. 아버지도 울먹이고 자식도 울먹였다. 밥벌이의 대몰림이 뭔가를 부자父子는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환갑잔치를 넘긴 아버지는 방금 산란을 끝낸 상류의 연어처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몰골로 임종을 기다린다. 그의 심정을 아는 건 자신의 아내와 세월 밖에 없다. 그 세월의 문법은 침묵이니 누가 아버지의 폐부에 박힌 사연을 공감해줄 수 있겠는가.

#넷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버렸다.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세상은 이제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남존여비가 아니라 여존남비의 세상이 된 것이다. 밥을 먹을 때도 아이들 좋아하는 식당으로 데려간다. 아버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 지 묻지 않는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고도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아버지의 노동만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다. 어머니가 여전사처럼 뛰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다. 씩씩하고 성실한 아버지는 갈수록 설자리가 없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빠른 아버지만 득세를 한다. 추억의 아버지는 박물관으로 간다. 아이한테 어머니한테 싹싹한 아버지만 살아남았다. 우직한 아버지는 유배를 떠난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다. 어떤 때는 스마트폰이 아버지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이제 뒤꿈치 굳은살 신세가 된 그 남자.

#다섯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는 요즘 아버지. 어느 날부터 자기를 더 챙긴다. 자식부터 챙긴 그 시대의 아버지는 이상하게 더 설 자리가 없다. 이 시대는 어머니의 안부를 더 궁금해 한다. 어머니를 부탁해도 아버지는 부탁하지 않는다. 골목 구석방에 난파선으로 나뒹굴고 있을 그 시절 아버지를 위해 누가 푸른 바다를 깔아줄까. 자신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생긴 그 아버지의 뒤꿈치의 굳은살이 더없이 처연하기만 하다.

이춘호

1960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0년 기자가 된다.
2000년부터 어른들을 위한 동요가수가 되었다.
2010년 어른들을 위한 동요 앨범 '바람' 출시 기념 콘서트.
2010년부터 제주도 용눈이오름을 필두로 1인 전국투어 버스킹 시작.
2000년부터 영남일보 음식 담당 기자로 한식의 원류 탐색에 나섬.
2010년부터 푸드 스토리텔러(Food storyteller)로 대구KBS'삼도삼미' KBS'한국인의 밥상', EBS '요리비전' 등에 출연.
2007년 저서 '달구벌의 맛과 멋' 출간.
2013년 저서 '경북의 산채를 찾아서' 출간.
1999년부터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에 '깨달음이 있는 수필' 16년째 장기 연재 중.
現 대구 영남일보 기자.
現 문화사랑방 유목민 대표

글
주영미 | 법보신문 기자

아버지의 다리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는 매일 저녁마다 다리를 주물러드려야 하는 존재였다.

9시 뉴스가 끝날 시간이 되면 우리 삼남매는 티격태격 거리며 누가 그날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를지 결정하는 게 숙제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당첨자가 되면 할 수 없이 엎드려 누워 있는 아버지 곁에 가서 시큰둥하게 다리를 주물렀다. 최소 10분이 목표였지만 언제나 9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시간 다 됐다며 쏜살같이 일어나서 텔레비전 앞으로 자리를 옮기고는 시치미를 뚝 땐 채 드라마 시청에만 몰두했다. 그럴 때면 늘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한 어머니가 "겨우 그만큼 해드리고 마느냐"며 급히 손을 닦고 아버지 곁으로 가서 잠이 드실 때까지 한참을 더 주물러드리곤 했다.

'왜 아빠는 매일 저녁만 되면 다리가 아플까. 실제로는 아프지 않는데 일부러 주물러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공부는 하지 않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게 못마땅하시니까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거야. 제발 오늘은 그냥 잠이 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리 주물러 달라고도 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 시절 머릿속에 둥둥 떠 있는 생각의 덩어리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어떤 날은 정말 아버지의 다리 주무르기가 싫다고 투정을 부린 적도 있었다. 집안 제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일손이 너무 바빠 미처 '대충 주무르기'가 끝난 이후에도 어머니의 후속 주무르기가 뒤따르지 못했을 때 아버지 곁으로 다시 가야 될 상황이면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왔다. 독서실을 다니느라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오빠, 한참 나이어린 여동생에 비해 유독 순서가 잦게 돌아오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기도 했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던 아버지 다리 주무르기는 밀레니엄 2000년을 맞이하면서 종결이 됐다. IMF 시절 아버지가 근무하던 회사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힘들어졌고 타 지역으로 전출되다시피 했던 아버지는 그 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회사를 그만 둔 뒤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뒤로 아버지의 장딴지는 기억 속에서 슬금슬금 사라져갔다. 어느 새 나의 귀가 시간은 아버지가 잠든 뒤로 미뤄지기 예사였다. 수년 전부터는 몇 달 간의 출장 근무를 계기로 아예 부모님과는 독립을 선언을 했다. 이제는 아버지의 다리는 커녕 얼굴을 뵙는 날도 한 달에 다섯 손가락을 채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게 요즘의 삶이 되었다.

얼마 전 어머니의 요청으로 아버지의 신발을 한 켤레 샀다. 아버지는 웬만해선 쇼핑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시골로 거처를 옮긴 이후로는 어머니 역시 시내에 나올 일이 확연히 줄어든 상황이어서 가장 적당해 보이는 신발을 사오라는 주문이었다. 판매원의 추천을 받아 나름 괜찮아 보이는 신발을 하나 들고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참 오랜만에 아버지의 다리를 마주했다.

돌처럼 굳어있는 뒤꿈치, 툭 불거진 발톱, 뼈가 앙상하게 보이는 발등, 뭉친 장딴지, 넘어져서 생겼다고 들었던 무릎의 흉터까지…. 아버지의 다리는 어린 시절 내 손의 감촉이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마르고 더 딱딱하고 더 거칠었다. 이제야 당신께 물었다.

"아빠, 왜 그렇게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하셨어요?"

"근무할 때 점심시간 빼고는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일했거든. 집에 와서 밤이 되면 다리가 쑤셔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래도 너희들이 항상 만져줘서 다음 날이면 거뜬히 일어나서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거란다."

새삼 조금이라도 그 시절의 채우지 못한 몇 분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소매를 걷고 아버지 다리를 오랜만에 주물러드렸다. 잠시 손만 댔을 뿐인데도 아버지는 웃으며 이제 됐다고 했다. 한참동안 꾹꾹 누른 것 같지만 더 세게 해달라던 당신의 요청에 한숨을 푹 내쉬었던 철없는 어린시절이 떠올라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머리만 긁적거렸다.

최근 들어 달리 바쁜 일도 없이 한동안 시골을 찾지 못했다. 그런 내게 아버지는 "밥 챙겨 먹고 따뜻하게 지내라"는 메시지에 하트 표시를 넣어서 나보다 더 자주 문자를 보내주신다. 옛날 아버지 장딴지 위에 올려 져 있던 내 손가락들이 움직이는 둥 마는 둥 했다면 지금 아버지의 손가락은 메시지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타고서 어깨를 토닥여준다.

유독 차가운 날씨 탓인지 아버지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 목소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너무 늦지 않게 아버지의 다리를 다시 만나야겠다.

주영미

부산 동아대 사회학과를 졸업
2003년 불교계 언론사 중 한 곳인 '법보신문'에 입사해 부산경남지역 주재기자로 활동 중이다. 현재 법보신문 편집국 차장이다.

사찰 속 공양간을 가다

글
김윤희 등불 편집실

사진
유동영 사진작가

홀로 사는 즐거움

그리고
함부로 걷지 않는 수행길

송광사 인월암으로

'눈 내린 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욱이 훗날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서산대사의 선시가 입에서 주르륵 흘러나온다. 뽀얗게 눈을 덮고 앉은 암자의 풍경은 누구라도 선승을 만들 기세이며, 누구라도 시 한 수 읊게 만드는 풍광이다.
송광사 인월암에 주석하고 있는 원순스님은 25년 째 그곳에서 홀로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손수 밥을 짓고, 몸소 나무를 해다 나르고 군불을 지피며 수행의 이력을 더하고 있는 중이다.

인월암은 송광사 본 도량을 지나 가벼운 마음으로 포행을 하듯 산길을 걸어 오르다 보면 우측 편백림이 가득한 곳에 위치해 있다. 여름이면 넓게 펼쳐진 들판에 파랗고 붉은 고추가 가득하고 좌, 우로 옥수수며 갖은 먹거리가 즐비하다. 거기에 하늘로 치솟은 편백나무 숲은 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행자에게 가장 감사한 선물이다.
그늘을 만들어 더위를 식히게 해주며 아래로부터 불어오는 강풍을 막아주는 역할 등 그렇게 최상의 혜택을 누리게 해 주며 숲이, 산이, 자연이 존재하는 까닭을 지척에서 알게 해주니 말이다.

그런 인월암을 병신년을 맞은 겨울의 중간에 찾았다. 여느 때 같으면 암자의 바로 아래 축대 밑까지 자동차를 타고 올라갔을 테지만 예사롭지 않은 눈은 일찌감치 엄두도 내지 못할 수위로 산사람들의 발을 꽁꽁 묶어놓은 것이다.
사진작가와 동행한 인월암의 1월은 실로 겨울 암자의 '끝판'이라 해도 좋았다. 며칠 째 산길을 내려오지 않았을 스님은 정말이지 최소한의 찬으로 허기를 채워줄 만큼의 공양으로 암자에서의 매일을 오롯이 정진으로 임하고 계신 듯했다.

밥과 된장국. 그것이면 부러울 게 없다는 스님이다. 끼니 걱정 않고 참선하고 어록을 번역하고 하는 일이 스님에게는 일과였고 구들을 데우기 위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은 겨울 암자에서 스님을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운력인 셈이다. 그 또한 몸을 움직일 이유를 주니 감사하다는 것이 원순스님에게 있어서는 정진의 연장인 셈이었다.

20년도 훨씬 넘은 일이다.

원순스님은 송광사와 인연이 닿았고 지금의 인월암에 머물게 되는데 당시, 불일암에 계시던 법정스님이 걸음을 하신 것이다. 법정스님은 지금 보다 훨씬 강직한 모습이 도드러지던 스님에게 예의 진지한 표정으로 덕담을 주셨다. " 원순스님, 한 곳에서 10년을 살아야 땅의 기운을 받게 돼. 그러니 '수행자가 처소가 따로 어딨냐'며 바랑 짊어지고 휙 떠나지 말고 이곳을 지키며 사시게나." 라고.

선사의 말씀을 허투루 여길 일이 아니었다. 과연 10년을 살았고, 다시 10년을 훌쩍 넘기고보니 산과 수행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그야말로 조계산에 둘러싸여 그 기운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허공이, 숲이, 바람이 도반 되니 어느 하루도 혼자일 날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치문, 금강경 오가해, 중론, 법성게, 돈오입도요문론 등 수많은 조사어록을 번역하는 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일념으로 몰입하는 일상이 되었고 법을 청해오는 곳이라면 원근각지 어디라도 달려가 밥값(?)을 해주고 와야 했다. 물론 밥값이라 이름 하는 것은 부처님 이름으로 대중이 올린 공양물을 받아 생활하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이자 의무였다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25년 여 시간이라는 것이다.

원순스님은 어록을 번역하는 일에서도 경전어록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는 일에서도 '그저 할 뿐'이며 '오로지 임할 뿐'이다.
출가수행자의 본분이 그것이고 출가시절의 발심에서 멀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는 스님의 종교관이자 수행관이며 삶의 철학이기도 한 까닭이다.
지금도, 서울과 부산, 광주 등을 쉼 없이 오가며 법을 청하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에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펴고 있다.

"눈 내린 인월암은 암자를 더 할데 없는 암자로 기억하게 할 그림입니다. 이곳이 천하 명지이며 복밭이 아닌가 합니다. 스님."
"그렇지요. 정말 좋은 도량입니다. 멀리 갔다가도 돌아와 몸을 누일 수 있고 어록을 번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복인거지요."
"스님, 그러나 이처럼 눈이 내려 길이 끊어질 때라든가, 폭우나 태풍으로 길이 묶일 때는 어찌 하십니까? 불편하실 텐데요…"
"불편함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아름다운 해우소이지만 저 해우소로 인해 감사함을 알고, 작은 처소이지만 나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도량이니 이것만으로도 청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함 투성이지요."
그런 담소를 나누며 저녁공양을 준비하는 스님이다. 딱 한 평 남짓한 공양간에 양은솥 하나 걸려 있고 그 위 부뚜막과 부뚜막 위로 마련된 작디작은 선반 위에는 고추장과 단촐한 몇 가지의 양념통이 주인장의 삶을 대변하듯 옹기종기 소박하다.
장작이 타고 있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잠시 몸을 녹이니 일어서는 일이 아쉽다. 객을 위해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여낸 스님의 손길이 너무도 송구하다. 그러나 대접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스님표 법문 한자락 날리신다. "맛 있지요?… 정말 맛있어." 라며 밥과 된장국 두 가지를 성찬으로 대접해 주는 스님이다.
감사함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부처님, 그리고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이 그냥 이어져 온 것이 아닌 것이다.
그 무진의 환희심을 안고 도량을 다시 내려갈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이 흰 세상을 덮는 양하다.
"다들, 산을 떠나가는데 나조차 떠나서 되겠습니까?" 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스님의 말씀이다.

일러스트
정기란 불교일러스트 작가

글
안필선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인도 불교의 역사 _

인도사상의 특징과 흐름 (2)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

인도사상이 우파니샤드의 시기를 거치면서 업, 윤회, 해탈이라는 특징적인 개념이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인도사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근간에는 업(karma)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업이 발생하고 그것이 어디에 쌓이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 다음 생에 업이 전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연속을 단절시킬 수 있는 해탈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마치 재료는 동일하더라도 조리법에 따라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우파니샤드의 시기에 발생한 많은 철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업과 윤회, 그리고 해탈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각자 다른 색깔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학파의 시기'입니다. 음식점을 차린다고 해서 모든 집이 번창하게 되지는 않듯이, 업과 윤회, 그리고 해탈을 설명하는 나름의 방식을 지닌 철학자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학파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에 논쟁을 통해 사상은 약하거나 허술한 것에서 강하거나 치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이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면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리불과 목건련(인도 국립박물관 소장)
사진출처 : By Nomu420 (자작) [CC BY-SA 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via Wikimedia Common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 십대 제자 중 사리불과 목건련은 본래 왕사성 부근 한 마을의 친구 사이로,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까지는 '산자야'라고 하는 회의론자의 제자였습니다. 수행을 통해 스승의 경지에까지 오른 사리불과 목건련은 그러한 경지에 무언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차, 우연히 부처님의 첫 제자인 5비구 중 한 사람, 아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아설시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인 4성제와 8정도, 12연기를 전해들은 사리불과 목건련은 사상적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을 느끼고 그길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상이 얼마나 체계적이며 합리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학파는 그 명맥을 이어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갈림길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학문 체계를 토대로 한 경전을 갖추고 대를 이어 후속 세대를 배출하는 등 학파라는 이름에 걸맞은 집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파有派와 무파無派의 구분입니다. 유파는 앞선 시기의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파로, 대표적으로 일원론의 베단타와 미망사, 이원론의 상키야와 요가, 다원론의 니야야와 와이셰시카의 여섯 개의 학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육파철학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에 반해 무파는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파로, 불교가 그 대표적인 학파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제식을 위주로 하는 바라문전통과 수행을 위주로 하는 사문전통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바라문전통은 육파철학 중 베단타와 미망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파 전통이며, 사문전통은 육파철학 중 요가학파와 불교가 그 대표적인 학파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학파의 구분으로 봤을 때,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무파에 속하면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사문전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학설을 토대로 나름의 전통을 계승하는 각 학파들은 서로 다른 학파와는 물론이며, 학파 자체 내에서도 서로 다른 사상적 입장에 따라 논쟁을 거듭하면서 사상을 더욱 체계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많은 논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철학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파의 사상이 체계화되고, 그 철학이 농익을수록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마침내 대중과는 동떨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0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 인도에는 앞선 시대에 아리안족이 그러했듯 외부로부터 이슬람 세력이 유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원론에 속하는 이슬람의 종교 사상은 특유의 단순한 이론 체계를 내세우며 정치·군사적 세력 확대를 토대로 대중들에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사상의 유입은 기존의 학파를 중심으로 한 인도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학파 전통은 점차 통합·단순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야흐로 힌두이즘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시기 불교 또한 사상적 기조에 영향 받아 탄트라 전통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에서는 소멸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오히려 불교가 인도라는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티벳,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기에 이르러 세계종교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안필섭安必攝
대구 출생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학부, 석·박사 졸업(철학박사)
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현. 한국요가학회 학술이사

통도사 합창단 단원모집

영축총림 통도사 합창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전달하는 신행모임입니다.
장엄한 법석에서, 아름다운 야단법석에서
혹은 지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정중한 의식에서 소리공양을 올릴
귀한 인연을 지어 보시기를 바라옵니다.
통도사 합창단에서는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 상** 불교와 음악에 관심 있는 통도사 신도 및 일반불자(약간명)
- **모집기간** 상시모집
- **활 동** 사중 정기 법회 및 행사시 음성공양, 대외 합창경연대회 참가
  음성공양을 통한 불법홍포 및 통도사 홍보
- **문 의** 지휘자 : 010-4558-8728, 포교국 : 055-384-8380

통도사 선다회 25기 신입생 모집

- **대 상** 차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불자
- **모집인원** 기초반 1년 과정 ○○명
- **모집기간** 2016년 3월 31일까지

- **수 업 일** 매월 1, 2, 3, 4주 화요일
- **수업시간** 오전 10:30~12:30

-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통도사 종무소
- **모집기간** 입회지원서, 사진 2매(3×4cm)
- **문의전화** 통도사 종무소 055-384-8380
  선다회 총무 010-3885-1422

통도사 요양병원
건립 불사 권선문

영축총림 통도사는 1300년 전통의 수행가풍을 이어온 수행도량입니다. 영축산의 위용과 함께 수행풍토를 이어가고 있는 통도사에서는 승가의 수행 외호와 함께 재가불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 불사에 뜻을 모으고 2014년 6월 21일 기공식을 봉행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비와 수행, 자선의 마음을 함축한 요양병원을 계획,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통도사가 전 대중의 뜻을 모아 착수하게 된 불교 요양병원 건립에 여러 불자님들의 수희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신앙심 고취와 더불어 향기어린 봉양의 의미를 지닌 이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불사문의

회계실 TEL. 055-382-7187
종무소 TEL. 055-382-7182
화엄전 TEL. 055-381-1288
FAX. 055-372-7010

동참 계좌번호

농협 351-0655-3958-23 (예금주 : 통도사)

병원불사 내역

일병동 동참	일억원
특실 동참	삼천만원
진료실 동참	천만원
일병상 동참	백만원
의료기기 동참	오십만원
휠체어 기증	삼십만원

※ 불사금은 분납하셔도 됩니다.
※ 동참금은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통도사 요양병원 법당
약사여래 삼천불 봉안 불사

사부대중의 원력모아 요양병원 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약사여래 삼천불전을 건립하여 약사여래
삼천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가정 가정 무루 동참하시어 가족분들의 무병장수와
병고쾌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동참내역 원불 조성 소불 - 일백만원, 대불 - 일천만원
불사문의 기도접수처(화엄전) TEL. 055-381-1288 / FAX. 055-372-7010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1662-8624-1(예금주 : 통도사)

글. 사진
김정은 등불 편집실

내가 내게 주었던 선물 같은 시간들

1년간의 여행, 일본

2013년 12월, 일을 그만뒀다. 일본에 가기로 결심했다. 짧은 여행에선 볼 수 없는 일본의 또 다른 얼굴이 궁금했으며, 낯선 땅에서 홀로 이방인으로 살아보고도 싶었다.
몇 달이 걸려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 반일감정과 후쿠시마 발 방사능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주변의 염려를 뿌리치고 오기 한 줌 달랑 꺼내 든 채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주민들 사이에 섞여 생활인으로 살아보기. 그 1년간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온천마을 쿠로카와 |

타카치호 신사 |

온천마을 쿠로카와 |

1년 동안 내 주소지는 큐슈 쿠마모토현県 아소군郡 미나미오구니라는 지역에 속한 산골 온천 마을이었다. 어둔 밤 가로등 불빛이 더는 닿지 않는 곳에선 달과 무수한 별들이 쏟아내는 빛이 길잡이가 되는 곳이었고, 유명 관광지임에도 그 흔한 유흥가도 없이 마을 주민들이 옹기종기 옛 정취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었다.

중부 내륙에 가까이 자리한 곳으로 후쿠오카, 쿠마모토, 벳부, 미야자키가 자동차로 2~2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고, 아소시를 둘러싼 외륜산 자락이라 차로 10분 정도 가면 분화하는 아소산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아소산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산 중에 하나인 나카다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칼데라호가 있지만, 지금도 유황가스를 내뿜는 활화산이라 우스갯소리로 3대가 복을 지어야 볼 수 있는 곳이라 했다.

일본에 도착한 지 얼마지 않아 나는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라는 큐슈에서 세 번의 지진을 경험했고, 그것이 화산성 지진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아소산이 분화를 시작해 경계경보가 내려진 것이다. 얄궂게도 '다음 휴일엔 케이블카를 타고 나카다케의 칼데라호를 관광하겠다'고 마음먹은 직후의 일이었다.

아소산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산 아소오악阿蘇五岳은 또, 다섯 개의 봉우리가 늘어선 형태가 마치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아소열반상'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느 이른 아침 쿠마모토 시내로 향하던 길이었다. 차로 30분쯤 달렸을 때 운전을 하던 지인이 "조금 더 가면 무척 경치 좋은 곳이 있다"고 했고, "운이 좋으면 운해도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운이 반쯤은 따랐다. 분지인 아소시를 반쯤 덮었다 막 걷히기 시작한 운해와 열반상이 우릴 맞은 것이다. 일본에서 지내기 시작한 후로는 처음 만난 부처님이었다. 그 고요한 아침 그 넓은 도량에서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인 양 나툰 부처님은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고개 넘어 그곳에 계셨다.

타카치호 협곡 |

지인은 운해와 아소산, 아소시를 전망할 수 있는 외륜산의 포인트 중에서는 '다이칸보大觀峯' 전망대가 제일 유명하다는 팁을 건네고 다시 차를 몰았다. 우리가 간 곳이 그 '제일 유명한 곳'은 아니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인근 관광지까지의 거리나 교통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됐던 곳이 '타카치호'였는데, 자동차로 2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미야자키현에 속한 지역으로, 신화의 마을이라 불릴 만큼 고대신화와 전설이 무수한 곳이라 했다. 아소에서 타카치호를 거쳐 동쪽의 노베오카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타카치호 신화 가도'라 불리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며, 타카치호의 주상절리 협곡에서 노를 젓는 기분은 신선놀음이라는 감상으로 나를 기대에 부풀게 했고, 그런 내 기대를 읽은 지인은 기꺼이 다카치호 협곡까지 동행해 주었다.

타카치호 협곡은 명성을 배신하지 않는 풍광으로 나를 맞았다. 타카치호 협곡은 일본의 건국신화가 서려 있는 곳으로 아소산 분출 당시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져 이루어진 주상절리 군락이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아날로그식 쪽배에 올라 노를 저어 가면 주상절리를 타고 쏟아지는 일본의 10대 폭포 미나이 폭포를 바로 옆에서 감상할 수도 있다. 인근의 다른 명소도 둘러보겠냐는 지인의 제안을 사양하고 협곡에서 긴 시간을 머물고 돌아왔다. 불현듯 일어난 자연이 주는 휴식만큼 따뜻한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일본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큐슈는 난개발을 지양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편의를 도모한다는 인상이 짙은 곳으로, 나는 그 자연이 주는 무한의 혜택을 누리고 싶었다.

아소시 외륜산에서 보이는 아소열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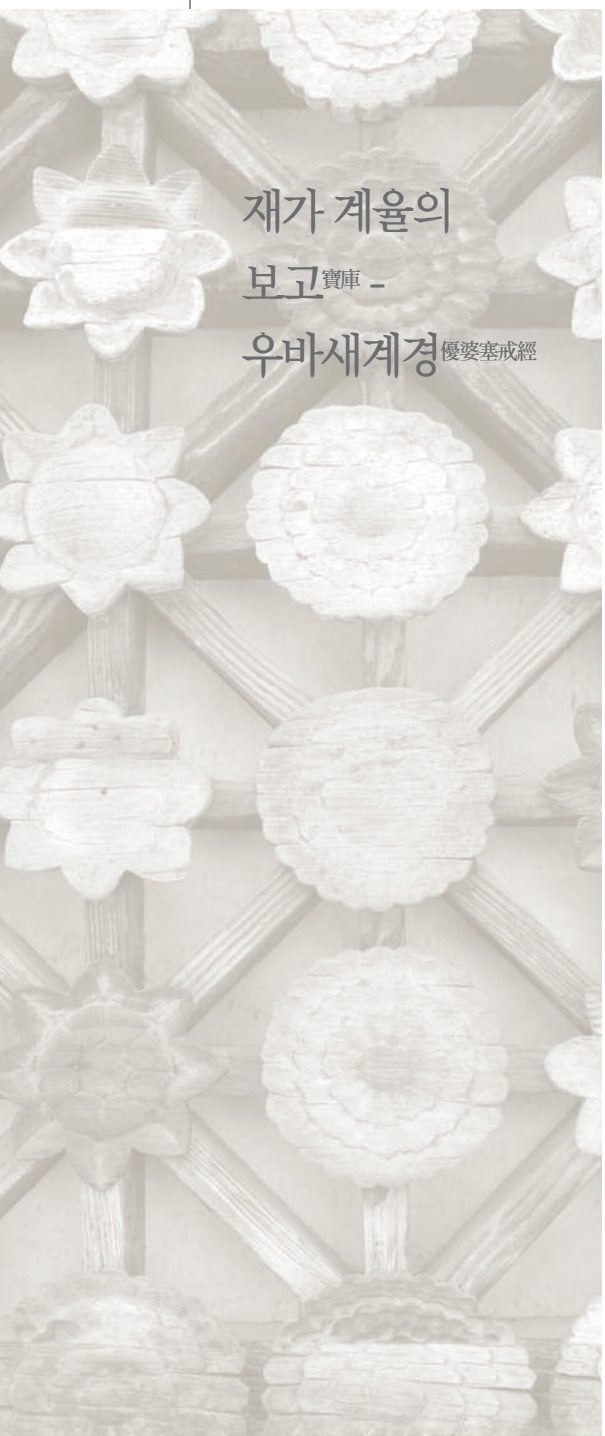
그렇게 하루 혹은 며칠간의 외유가 끝나고 나면 나는 다시 작은 산골마을로 돌아와야 했다. 30여년의 도심 생활에 익숙했던 나는, 처음 얼마간은 해가 지면 더는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이곳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다. 그랬던 귀가길이 어느 날 부턴가 안도감을 준다는 것을 자각했다. 입구가 보이면 "집에 왔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한 것이다.

쉬는 날이면 어떻게든 더 많은 일본을 경험해야 한다고 짐을 싸들고 외출하기 일쑤였지만, 실은 내가 지내던 곳 역시 일본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휴양지 가운데 1순위로 꼽히는 관광지였다. 그러니 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즐거워하기도 투덜거리기도 하고, 이곳저곳 발품을 팔고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은, 긴 여행의 정점에 있다는 생각이었고 그러기에 늘 감사한 나날이었다.

"また戻ってこられますか?(다시 돌아오시나요?)"
2015년 8월 5일, 만료기간이 겨우 5일 남아있는 비자를 확인한 후쿠오카 공항 출국심사 담당 직원이 물어왔다. "아니오", 내 대답은 간단했다. 직원은 나의 외국인용 체류카드에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명시하는 구멍을 뚫고 되돌려주며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하고, 지극히 형식적이었지만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인사 한 마디를 건넸다. 그날, 꼬박 1년에 걸친 일본에서의 '생활여행자'로서의 여정이 끝이 났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이 인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것이리라. 문고리에 걸려 있던 누군가의 선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깨던 아침, 덜컹거리며 달리던 오래된 노면전차. 그런 소박했던 일상들이, 나는 지금 너무나도 그립다.

노을 지는 쿠마모토 |

글
덕문 영축총림 율학승가대학원장



재가 계율의 보고寶庫 -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

제2 발보리심품發菩提心品
- 보리심을 내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왜 보리심을 냅니까?"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하여 보리심을 내나니 첫째는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늘리기 위함이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보살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이다."

해설

『우바새계경』은 재가불자가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대승계율에 대한 말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살도 실천은 대승불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문과 연각이 과위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다시 대승심을 발해서 보살도를 실천해야만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다시 보살도 실천을 발원한 사람을 회심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발했느냐에 따라서 난행고행도 지극한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실천할 수도 있고, 무량겁에 걸쳐서 성취할 수 있는 수행이력을 한 순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보리심을 발했고,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만 쉽고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등의 법에 대한 안목과 확신을 갖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보살은 왜 보리심을 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총 12가지를 각각 두 가지 항목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수명이나 재물을 늘리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는 것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살도 실천을 통해 수명과 재물이 어떻게 증장되는가?'라는 물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선 보살도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도 실천은 육바라밀, 혹은 십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즉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방편·원·력·지 등인데 이 가운데 보시행을 통해서 수명과 재물을 넉넉하게 한 경우는 삼장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말리부인을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법을 보호하고 승단을 후원한 대표적인 여성 불자로 말리부인과 비사겁모를 들 수 있습니다.

말리부인은 말리동산을 지키는 황두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말리동산으로 일을 하려고 집에서 일터로 가는 도중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점심으로 먹으려고 준비했던 건반을 보시한 공덕으로 바로 그날 파사익왕을 만나게 되고, 궁궐로 들어가서 파사익왕의 제1부인(왕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국가와 승단과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재역할을 하고 부처님께 보고를 해서 계목을 제정하게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보살도실천을 발원하고 바라밀행을 하는 일은 수명을 증장시키고 재물을 늘어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보살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다'하는 부분에서 말하는 보살종성이란 무루의 종자를 갖추어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불과를 증득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성에 대한 확신으로 본래 모두에게 구족되어 있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불성을 인식해서 죄와 고통과 번뇌가 본래 없음을 깨닫기만 하면 이러한 문제는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열 가지의 보리심을 내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한량없는 세상에서 큰 고통과 번뇌를 받으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중생을 살펴보고, 갠지스 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한량없는 부처님들도 우리의 모든 몸을 제도하여 해탈시킬 수 없기에 자신이 제도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냅니다.

넷째는 모든 선한 업을 짓고, 짓고 나서 잃지 않기 위해서 보살심을 내며,
다섯째는 모든 인간과 하늘의 과보보다 뛰어나고 이승의 과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보살심을 내며,
여섯째는 큰 괴로움과 번뇌를 받아 보리도를 구하기 위해서이며, 셀 수 없이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살심을 내며,
일곱째는 과거와 미래의 갠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부처님이 내 몸과 같고,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임을 깊이 살펴서 아는 까닭에 보살심을 내며,
여덟째는 육주六住·지혜를 성취하여 바른 마음에 안주함에 도달한 사람은 비록 퇴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성문이나 연각보다는 뛰어남을 보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위없는 과보를 찾고 구하기 때문에 보살심을 내며,
아홉째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고, 중생들이 외도가 얻는 과보보다 뛰어난 과보를 얻게 하기 위하여 보살심을 내며,
열 번째는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고, 모든 번뇌를 버리고 여의기 위해 보살심을 내며,
열한 번째는 중생의 현재의 괴로움을 끊어주기 위하여, 중생의 미래의 괴로움과 번뇌를 끊어주기 위하여 보살심을 내며,
열두 번째는 지혜의 장애를 끊기 위해서, 중생 몸의 장애를 끊기 위해서 보살심을 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리심을 내는 다섯 가지와 세 가지 일 때문에 보리심을 내는 등의 보리심과 관련된 많은 말씀을 <발보리심품>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리심을 내는 일은 보살도를 실천하고 완수하는 일의 출발이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발보리심품의 내용을 통해서 원만하고 수승한 보리심을 내고 마침내 보살도를 완성하는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덕문스님
중봉성파스님을 은사로 통도사 득도
월운 강백스님에게 전강
철우 · 혜남율사스님에게 전계
사미계 수계산림 유나
현 단일계단 교수사 · 갈마사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계단위원회 위원

글. 사진
이병인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눈 푸른 스님들

지금 한참 동안거중입니다. 석달 동안 겨울철과 여름철에 수행에 정진하는 청정가풍이 오늘날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봅니다. 묵묵히 수행에 정진하는 스님들이 있기에 한국 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리라는 기대가 듭니다.

수행에 정진하시는 선방스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행에 정진하는 선방스님들은 특히 산과 숲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매우 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산에 가는 것을 등산登山이라고 하지만, 스님들은 입산入山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 보면, 귀산수도歸山修道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산에 돌아가 수행하고자 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잘 일컫는 말입니다. 그만큼 불교에서는 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은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잘 어우러진 전통경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점들이 인정받아 통도사를 포함한 대표적인 전통산사 7곳이 세계문화유산 등재후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중요사찰들의 대부분은 자장스님과 원효스님, 의상스님같은 역대 큰 스님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입지분석이나, 타당성조사 같은 것들 대신 덕 높으신 고승들의 혜안으로 사찰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산에 잘 둘러싸인 사찰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산이 새의 둥지라면 사찰은 산이라는 둥지에 둘러싸인 알처럼 산과 함께 하여 왔습니다. 숲의 종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숲을 지키고, 삶의 터전으로 지켜왔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1700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숲을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직접 경험했던 불교환경현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 9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중의 하나가 국토환경의 파괴와 훼손이었습니다. 선진국 겪어야 했던 200년 이상의 산업화과정을 수십년 만에 추구하다보니 사전에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생각할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었지만, 많은 국책사업들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그 어떤 사전검토도 없이 무모하게 추진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와 국토환경의 파괴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새만금사업도 그렇고, 지리산댐도, 4대강도 그렇습니다. 그때 불연히 나타나신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선방에서 정진하시던 스님들이 산과 강이 파헤쳐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서셨습니다. 수경스님, 지율스님, 문수스님 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권스님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기본적인 모습은 산을 지키고자 수행하는 스님들이었습니다.

수경스님은 이십년 이상 선방에서 수행하시다가 잠시 실상사에 들렀다가 산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수행이냐?는 도법스님의 권유에 의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리산댐 반대운동부터 시작하여 새만금의 삼보일배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의 수행정신을 환경활동으로 확대하신 분입니다. 지율스님도 천성산 내원사의 선방스님으로 수행하시다가 포행 중에 무분별한 임도가 개설되는 것을 보시고, 산을 지키고자 나서신 분입니다. 수십 일에서 백 일을 넘는 단식정진을 통해 한국 환경활동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4대강 사업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시절에 오로지 목숨을 걸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소신공양을 보여주셨던 문수스님 또한 그러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환경단체대표들이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수경스님과 지율스님이 나서고 부터는 환경단체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분들처럼 순수하게, 몸 바쳐서 할 수도 없고, 동기의 순수성이나, 활동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환경활동의 큰 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분들의 활동이 불교전체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사안중의 하나는 한국 환경활동사상 백만명 이상의 반대 서명을 받고 대법원에까지 가는 20년의 기나긴 소송 끝에 사업이 취소됐던 가야산 골프장 건설사업입니다. 그때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사업을 백지화했던 것은 해인사 강원의 학인스님들의 눈 푸른 정기와 열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책사업에 대해 국가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발 사전에 검증하고,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제대로 된 국책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을 하고, 하나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화된 나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건전한 나라, 지속가능한 나라를 위해 바른 말과 행동을 보여줄 줄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이 종교계와 사회적 지도층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통도사의 경우에도 산을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이 지난 천사백년간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자장스님으로부터 여러 중창주 스님들의 땅 한 평이라도 구하고, 산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방장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은사이신 극락암의 경봉스님께서 배내골 물을 끌어오려는 터널계획을 들으시고, 영축산 줄기를 뚫으려는 것은 곧 내 복장을 뚫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직접 나서서 반대하여 철회시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십여년전에는 백호 등에 해당하는 초산유원지 개발을 통도사의 4부대중이 나서서 반대하였고, 그 땅을 매입하여 산을 지키고 통도사의 수행환경을 지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도 울주군의 무분별한 신불산케이블카건설을 적극 나서 반대하는 등 주위의 산을 지키고 천년고찰 통도사를 지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점이야말로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수행력이 아니면 힘들 일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처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청정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전통들을 이어서 오늘날 불교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불교라는 종교유산도 있지만, 국보·보물 등의 문화유산과 우리시대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산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 푸른 스님들의 청정가풍을 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이병인 교수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공학박사,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영축환경위원회 위원 등 40여 환경문화관련 자문

취재. 글
김윤희 등불 편집실

달을 품고 산에 기대어 부처를 그리다

한국의 3대 의병사찰 울산 신흥사를 찾아서

"기박산성에서 내려다본 건흥사 계곡은 요새와도 같을 것이니, 그곳에 승병을 일으켜 울산으로 들어오는 왜구의 침입을 모조리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모르긴 해도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호령하던 의병장수는 그렇게 진지를 지킬 것을 주문했을 것이다. 울산 신흥사(주지. 묘경)는 울산의 중심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며 그 거리로 치자면 경주와 더 가까운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다.
어떤 인연에서인지 그곳을 가던 때는 언제나 여름날이었다. 그러나 병신년을 맞아 오랜만에 찾게 된 신흥사의 겨울은 객의 방문을 오히려 낯설어 하는 듯하다. 고갯마루를 올라 산의 정상 즈음에서 다시 내려박히듯 계곡을 따라 내려가야 만나지는 신흥사는 공부하기 좋은 도량이라는 인상이 강한 곳이다.

절의 마당에 서서 도량을 올려다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편액이 함월산신흥사含月山新興寺라는 누각의 편액이다. 편액에서 느끼듯 달을 머금고 있을 보름날의 신흥사를 먼저 그려보게 된다. 휘영청 떠오른 달빛 아래, 고고히 자태를 뽐내고 있을 도량의 풍모가 마치 장삼자락을 위엄있게 쓸어내리며 포행을 하고 있을 그 오래전 지운스님의 잔영은 아닐까 싶은 것이.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사는 신라 선덕여왕 14년이던 635년 창건된 고찰이다. 신흥사의 창건 당시 사명寺名은 건흥사였으며 창건시기는 오히려 본사인 통도사를 앞서는 셈이다. 이후 1646년과 1752년, 1976년과 1997년 등 근현대를 거치며 화재로 전소된 것을 수차례 복원하였고 최근에 들어서는 적묵당과 누각, 청풍당의 불사를 현, 미타암 주지인 산옹스님이 도맡아 일구어 명실공히 울산지역의 최고 도량으로 일신시켜 놓았다.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삶이 유지, 존속되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과 기여에 의해 그런 흐름을 잇게 되는데 이후, 신흥사를 거쳐간 스님들에게 신흥사는 불사라는 일로서의 맞닥뜨림 보다는 울산지역민의 정신적 귀의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사찰이라는 것이 지배적 인식이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응진전, 삼성각이 외호하고 있는 모습과 적묵당과 청풍당 누각이 신장인 양,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은 고증과 풍수 등 지리적 검증을 통한 건립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니 민중봉기의 발상지였다는 역사적 근거는 틀림없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의 주지 묘경스님은 조계사에서의 소임과 본사에서의 포교국장 소임을 맡아 포교에 한보 앞서는 스님으로 각인이 된 인물이다.

그런 이력의 스님이기에 벌써 8년 째 해오고 있는 불서보급운동의 '향아숲'과 사찰 아랫동네인 호계마을에 건립한 북카페는 외진 지역이라는 문화적, 종교적 소외감을 해소시켜주는 커다란 디딤돌이 되고 있다. 군병원, 군부대, 교도소, 불교단체 등 소외된 곳에 불서를 선택하여 전달하는 일은 문서포교 즉, 법공양의 큰 공덕 가운데 공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흥사 부임 만 3년에 불교대학 6기생을 배출한 사실과 사경, 차명상, 꽃꽂이, 퀼트 등 전문 강사를 기용해 운영되는 문화강좌는 결국, 불교 입문을 통해 예술을 익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신흥사에서의 자랑거리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안 중 하나가 응진전 천장에 새겨진 반자이다. 나한님을 모시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불교문화를 집결시켜 놓은 듯한 정교한 단청이 그야말로 으뜸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지 묘경스님의 역할 또한 비중 있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 불기 2560년의 과제이다. 울산지방문화재자료로 등록된 응진전을 보물로 등재시키는 일과 반자나 응진전을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은 불교를 위한, 신흥사를 위한 그리고 울산지역민을 위한 3대 원력불사가 분명하다 하겠다.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는 주문을 신도들에게, 북카페를 찾는 이들에게 곧잘 들려주는 묘경스님. 스님의 은사이셨던 고 청하 노스님의 시봉들에 대한 당부도 그러했으리라는 짐작이다.

함월산 신흥사를 뒤로 하고 다시 왔던 길을 오르는 객의 걸음이 가볍다. 다시 봄을 맞고 다시 여름을 기다리는 마음이 달을 머금은 듯 풍요롭다. 나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다.

호국의 기백이 충천했을 기박산성이 이즘이었을 터다. 지켜냈기에 면면이 이어져 온 산의 기상이 나라를 지킨 승병의 모습과 하나되는 순간이다

(울산 신흥사 : 052-295-7522)

글
이미영 통도사유치원장

2015년
통도사유치원 별들,

별빛예술제를 만들다

새학기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활동으로 부모님께 선보이는 별빛예술제가 1월 22일 울주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어요.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떨려요." "엄마보면 실수할까봐 걱정되요." "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 하면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등의 우리 아이들의 설렘도 함께 준비되었지요.
그렇게 준비한 별빛예술제, 그 속의 이야기를 펼쳐봅니다.

우리 통도사유치원의 오프닝은 차 명상이지요.
7세 문수반 친구들의 시범으로 3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지요.
차를 우려내며 마음을 곱게 하고
"나는 부처님을 생각하며 차를 마십니다.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차를 마십니다.
나는 자연을 생각하며 차를 마십니다.
나는 자연을 둘러싼 우주를 생각하며 차를 마십니다."
라며 차의 향과 맛과 차가 주는 힘을 알아가며 생각과 행동에 깊이가 달라짐을 느끼지요.

차 명상으로 시작한 별빛예술제는 우리 통도사유치원 가족 모두 하나가 되고 함께 함으로써 즐거움이 배가 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5세 막내둥이들의 재롱을 뺄 수 없지요.
객석에 있는 엄마를 보며 행여 울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을 보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우리 막내둥이 마야반, 연꽃반 친구들은 리듬악기놀이, 영어발표, 율동 등 무대를 즐기는 수준이더군요.

6세 반야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실로폰을 조심스레 계명에 맞춰 두들기는 모습은 참 진지하구요, 리듬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어서인지 난타는 정말 멋지게 해 냈으며 또, 엄마 아빠앞에서 자신있게 영어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열심히 하는 이제 통도사유치원의 큰 형님이 될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7세 문수반 친구들은 정말 바빴지요. 차 명상을 시작으로 우리의 것을 잊지 않도록 함께 장단도 익히고 별달거리 장단도 노래와 함께 즐겼던 사물놀이, 남자 친구들만의 치어댄스와 여자 친구들만의 부채춤, 세계 어느 뮤지컬보다도 화려했던 혹부리영감의 영어뮤지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우리 문수반 친구들의 단합된 마지막 협연, 리코더와 마칭 연주 활동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통도사유치원 아이들의 발걸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합니다.
그 발걸음이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큰 꿈을 향할 수 있도록 모두 정진하는 모습에 응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기대를 해 주세요.

구술 원상스님
정리 박찬일
사진 최배문

늙은 호박죽

늙어서 지혜로운 것은 사람만은 아니다. 바로 늙은 호박이다. 이른바 '숙성'과는 다르다. 숙성은 이미 다 자란 것을 수확한 후 영양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맛을 들이는 과정이다. 곶감이 숙성의 한 예다. 숙성은 신비로운 자연의 선물인데, 그저 수확하지 않고 오래 두어서 생기는 영양의 증가가 놀랍다. 늙은 호박은 수확 후보다 줄기에 매달려서 충분히 영양을 갈무리한다. 보통 단맛과 은근한 향이 늘어난다. 단순히 그런 맛 외에도 영양 성분의 증가가 뚜렷하다. 비타민A와 C의 증가는 어린 호박에 비해 놀라울 정도다. 늙은 호박은 원래 이땅의 토종이 아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초가집과 넝쿨의 늙은 호박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림이다. 신선한 가을 수확이 끝나고, 저장 음식을 먹을 때 이 늙은 호박은 빛난다. 수확한 후에도 충분히 저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호박은 생김새 때문에 맷돌호박이라고 불린다. 거대한 호박의 무게가 묵직하다. 잘라서 그 속을 파면 더 '귀물'이다. 달콤한 과육이 충분하고, 씨는 말려서 벗겨 먹을 수 있다. 물론 영양가는 최고다. 개화 후 50일 정도 두어서 완전히 황갈색, 그러니까 황금색이 되었을 때 따는 게 좋다. 가을을 넘겨서도 상하지 않으므로 구황작물로 놓아두어 요긴하게 쓰기도 했다.

구황음식으로 먹을 때 이 호박은 빛난다. 콩이나 옥수수 같은 저장 작물을 넣어 범벅을 하는 것이다. 맛도 좋고, 영양가는 넘쳐서 호박만 많이 먹어도 버즘이 피지 않고 머릿결이 윤기난다 하였다. 옛날 가난한 선비 집안에 먹을 게 없었다. 겨우내 친구가 따다 준 늙은호박만을 삶아서 약간의 곡물을 넣어 죽을 끓여 겨우 연명했다. 그러나 그 양이 충분치 않았다.

배가 너무 고파 큰댁에 가서 양곡을 꾸기도 했다. 선비 체면에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형님이 보더니 이러더란다. "자네, 나 몰래 지난 가을 급제 했는가?" 그의 얼굴이 너무도 보기 좋고, 영양이 있어 보였던 것이었다.

호박은 소화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세수 높으신 스님의 공양과 간식으로 유용하다. 풍과 당뇨 같은 성인병도 예방한다고 알려졌다. 물론 이런 의학적 도움을 얻으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장복해야 한다.

이번에는 몇 가지 맛을 내는 작물을 섞어 죽을 끓여보았다. 호박죽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맛을 낼 수 있다. 쌀이나 찹쌀을 넣어 맛을 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밤 같은 작물은 단맛을 더 올려주고 영양도 강화시킨다.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잘 먹는다. 많이 끓여두고 식힌 후 냉동하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 늙은 호박 자체가 저장성이 좋다. 겨울에는 마당에 내어두는 것만으로도 저장효과를 낸다. 일단 잘랐으면 속을 다 파내어 갈무리하는 것이 좋다. 냉장하거나 양이 많으면 냉동이 좋다. 이 호박은 원산지인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다. 이른바 할로윈데이라는 그들의 명절에 이 늙은 호박 속을 파내어 촛불을 밝혀주는 관습이 있다. 호박의 영험한 축귀 사상을 보여준다. 그것은 어쩌면 늙은 호박이 갖는 독특한 에너지를 뜻하기도 한다.

늙은 호박을 살 때에는 색깔이 선명한 것을 고른다. 윤기가 돌고 모양이 예쁜 것이 좋다. 분가루 같은 하얀 분이 붙은 것이 더 달다. 들어 보아 묵직한 것이 보통 실하고 맛있다.

박철영이라는 시인의 멋진 시가 있다.

"세상사를 말할 때는 / 겉만 보고 말하지 마라 / 홀로 꽃 피우고 맺힌 / 호박덩이일지라도 / 단 한 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 '늙은 호박' 일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은 늙은 호박에게 깃든 불성의 힘을 들여다볼 일이다.

늙은 호박죽

재료 : 늙은 호박 사방 10cm크기 4조각, 마른 밤, 콩 등 1컵
불린 팥 1컵, 불린 찹쌀 1컵, 밤 10개, 소금

만드는 법

1. 먼저 늙은 호박을 껍질과 씨를 제거 한 후 솥에 잠길 만큼의 물을 붓고 끓여준다. 늙은 호박이 푹 무르도록 끓인다.
2. 마른 밤콩은 하루 전에 물에 불려 압력솥에 먼저 삶아 낸다.
3. 불린 팥도 압력솥에 삶아 낸다.
4. 찹쌀도 하루 전에 불려 놓았다가 믹서기에 대충 간다.
5. 밤은 1/4 크기로 잘라 놓는다.
6. 늙은 호박은 믹서기에 한번 갈아 준다.
7. 간 호박을 냄비에 붓고 끓이면서 간 찹쌀을 넣어 익을때까지 저어주면서 밤,콩, 팥 순서대로 넣고 찹쌀이 푹 익을때까지 잘 저어준다.
8. 마지막에 다 된 후 불을 끄고 소금 간을 한다.

글
윤태환 한약사.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수석부회장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한습寒濕을 제거 하는 쑥

지난 1월은 유난히도 추웠던 한 달이었다. 2월에는 설날을 지나고 나면 땅 속에서는 봄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양지바른 곳에서는 봄나물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달이다. 이달에는 지난달의 눈과 추위로 움츠려 들었던 몸에 온기도 불어 넣고, 몸속의 차갑고 습한 기운도 없애 줄 수 있는 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약재로 애엽艾葉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쑥은 이른 봄철 나물 중의 하나로서 예로부터 나물로, 쑥떡으로 즐겨 먹고 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이른 봄에 돋아나서인지 몰라도 약성藥性이 따뜻하여 약재 중에 순양純陽의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몸의 기혈氣血을 따뜻하게 하고, 쑥의 향과 쓴 맛이 따뜻한 약성과 더불어 한습寒濕을 없애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쑥을 차로 우려 마실 때는 이른 봄 어린 새싹의 쑥을 사용 할수록 쓴 맛을 줄일 수 있다. 다 자란 늦봄이나 여름철 쑥은 쓴 맛이 너무 강하여 차로 만들어 먹기에는 좋지 않다.

쑥이 갖는 한방적 효과는 한습寒濕을 없애고, 기혈을 따뜻하게 하면서, 지혈止血 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여성들이 몸이 차서 생리가 불순한 경우, 대하帶下가 있는 경우, 자궁출혈 등 몸이 차서 생기는 여성 질환에 사용 되는 중요 약재 중의 하나이다. 또 코피가 나거나 배가 찬 복통腹痛 치료에도 사용 되며,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있을 때, 아픈 부위에 잘 삶은 쑥을 명주 천에 싸서 문질러 주어도 좋다.

현대 약리 연구 결과로는, 위궤양 억제 작용을 하는 생약으로 스티렌이라는 약이 개발되어 전문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항 천식 작용, 진해거담 작용, 혈압 저하 작용, 항암세포 억제제의 활성화 작용, 항 알레르기 작용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렇지만 허혈虛血이면서 발열이 있는 사람, 몸이 허虛하면서 몸 상체에 열이 장기간 나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차 만들기

1. 이른 봄 어린 쑥을 채취, 깨끗하게 손질하여 물로 씻은 다음 그늘에서 물기가 완전히 가시도록 말린다.
2. 좀 큰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약한 불로 데운 후에, 말린 쑥을 넣고 덖는다. 이때 너무 오래 덖지 말고 뜨거운 열기를 느낄 때 쯤 채반에 들어내어 식히면서 비벼 준다. 완전히 식어 지면 다시 덖는다.
3. 덖는 횟수를 여러 번 할수록 쑥의 쓴 맛이 줄어들고 차의 색깔도 좋아진다. 많이 하는 경우는 아홉 번 까지 한다.
4. 마른 쑥은 습기를 잘 흡수하므로 만들어진 쑥차는 건조하게 보관하여 두고 사용해야 한다.
5. 차로 우려 마실 때는 본인의 기호에 맞게 맛을 조절하여 우려 마신다.

통도사 www.tongdosa.or.kr

초하루 법회 봉행 (1월 10일)

지난 1월 10일은 음력 12월 초하루였습니다. 총무국장 도문스님을 법상에 모셔 법문을 청해 듣고 초하루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도문스님은 법문에서 "욕심에 얽매이고 붙들면 중생이며 오온에 의해 생기는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고 설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날 3일간의 신중기도도 함께 입재하였습니다.

통도사 장엄등 강습 (1월 15~16일)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경내 해장보각에서 전통 장엄등 제작과정을 배우는 강습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강습을 위해 전통등 기능전수자인 전영일씨가 운영하는 전영일 공방의 식구들이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여 뼈대를 만들고, 한지를 배접하고, 밑그림을 그려 채색을 입히기까지 전통 장엄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1월 직원법회 봉행 (1월 18일)

병신년 새해를 맞아 사중 소임을 짊어진 종무직원들을 위한 첫 번째 법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재무국장 정안스님께서 법회에 동참하시어 유년시절의 역경을 딛고 19살 나이에 지역 뉴스 공동 캐스터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방송인이 된 오프라윈프라의 일화를 들려주며, 고난을 딛고 나아가는 의지에 대해 당부하셨습니다.

포살법회 (1월 24일)

1월 24일 포살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스스로 허물을 드러내어 참회하고 밝고 순일한 삶과 수행의 여정을 발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장재일 법회 봉행 (1월27일)

1월 27일 율원장 덕문스님을 모신 가운데 지장재일 기도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되었습니다. 한파가 물러가며 다소 날씨가 따뜻해져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여 영가왕생극락을 발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통도사 말사 주지임명

대전 봉국사 주지 혜도스님
동울산 포교당 법륜사 대표자 성윤스님
대전포교당 용수사 대표자 설문스님

통도사 내빈 방문

1월 22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내방
1월 26일 이계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내방
1월 28일 양산소방서장 내방

통도사 연수원 www.tongdosaei.co.kr

자연음식 연구소

2016년 사찰음식 정기강좌 수강생 모집

강좌기간 2016년 3월~5월 (3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2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7시
장 소 통도사 자연음식 연구소
문 의 010-4661-7751

박물관 www.tongdomuseum.or.kr

기도법회안내 : 인등 / 연등기도 : 2월 21일(일요일), 오후 5시, 성보박물관 1층 중앙홀

2016년도 1학기 성보박물관 문화강좌 모집 안내

성보박물관에서는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불자님들과 함께 찬란한 불교 전통 문화를 공유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집기간 2016년 1월 20일 - 2월 29일까지
- 교육기간 2016년 3월 - 2016년 7월
- 개강일시 2016년 3월 2일수요일 _ 과정별 해당요일
- 접수방법 방문 접수 _ 성보박물관 문화센터
  전화 및 인터넷 접수 _ 055)384-0020 / www.tongdomuseum.or.kr

강 좌 명	강 사 명	모집정원	강 좌 시 간	수 강 료	비 고
불 화	조해종	30명	목 (초급) 10:30 - 16:00	250,000원(6개월)	수시 모집
			목 (고급) 10:30 - 16:00	300,000원(6개월)	
단 청	홍관식	30명	수 10:30 - 16:00	400,000원(6개월)	
서 각	환 옹	각 20명	수 11:00 - 15:00	40,000원(매월)	
	서 곡		토 11:00 - 15:00		
불교문화유적답사	관장스님 및 학예사	35명	마지막 주 수요일	40,000원 ~ 60,000원 (매월 접수)	5개월 과정
생활자수	강남순	15명	첫째, 셋째주 월 10:00 - 15:00 (10회)	250,000원	
전통손누비	한인자	25명	첫째, 셋째주 목 10:00 - 13:00 (10회)	200,000원	
전 각	최두헌	15명	목 14:00 - 16:00	200,000원(수시접수 가능)	

※ 실기반은 재료비 별도.
※ 자세한 사항은 통도사 및 성보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되며 수강자격이 주어집니다.
※ 수강료는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개강 후 2주 이내 환불신청 가능합니다.

제19회 작은 전시-가면假面전 안내

- 전시일정 : 2016년 2월 16일(화)부터 약 3개월간
- 전시장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로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제19회 작은전시로 〈가면假面〉을 개최합니다. 가면假面은 세계 대부분의 민족이 원시생활에서부터 주술적 · 종교적 · 예술적 표현물로서 이용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연극이나 무용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가면을 함께 전시하여, 규모는 작지만 각 나라마다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면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물관 설 연휴 휴관 안내

설 연휴인 2016년 2월 7일(일)~9일(화)은 휴관합니다. 2월 10일(수)부터 정상적으로 개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비원 www.jabiwon.org

통도사자비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200여 분의 어르신들과 지역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80여명의 종사원이 최상의 서비스로 극진히 보살펴 드리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혈액순환을 위한 어르신들의 족욕 및 발마사지

양로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이 잦지 않은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고려한 족욕 및 발마사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족욕은 피로회복, 두통,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봉사자님들 덕분에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어르신들의 수지침뜸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수지침뜸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에 수지침 서비스를 받으면서 한걸음 더 건강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우울감 극복을 위한 어르신들의 요가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추운날씨에 외출이 잦지 않은 어르신들과 함께 우울감 극복과 겨울동안 꽁꽁 얼어있는 몸을 요가로 풀었습니다. 겨울철 어르신들의 활동량이 늘이고 굳어있는 몸을 유연하게 풀면서 우울감을 해소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비롭고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자원봉사자모집 : 목욕, 청소, 이 · 미용, 보건 의료지원, 프로그램 진행, 각종행사지원, 말벗 등
- 물품후원 : 생필품, 의약품, 가전제품, 의복, 쌀, 간식, 기저귀 등
- 후원계좌안내(cms, 지로, 통장입금)

농협 : 813037- 51- 054104　　국민은행 : 666 - 01 - 0040 - 891

- 전화 : 055-385-2800(직통), 383-3999 / 팩스 : 055-381-2242
- 주소 : 우)626-86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72-3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혜덕 대교반

졸업에 즈음하여

2011년 하안거의 끝자락.

나는 통도사에 발을 디뎠다. 행자실에 들어가 일주일간 면벽面壁하고 정식행자로 5계戒를 받고 통도사의 일원이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다. 게다가 생활방식이 TV에서나 보던 사극처럼 살다니!!! 후원에서 대중스님들의 공양준비를 돕고 저녁에는 초발심자경문을 배우면서 하루를 보냈다. 하안거를 해제하고 바로 앞에 행자생활을 시작한 행자님들이 사미계 산림을 떠나고 남은 행자는 6명. 가을을 보내고 겨울 동안거 기간 동안 추위에 견딘 후 5명, 마지막 수계산림에는 4명의 행자가 통도사에서 수계산림을 떠났고, 사미의복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보름간의 수계산림을 무사히 회향하고, 그렇게 입고 싶던 사미의복과 만의를 입고 통도사 강원의 원통방에서 입방갈마를 하고 강원생활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새로워 정신없이 보낸 치문반 시절. 원통방의 주인이 되어 통도사 사중을 강원의 중요 소임을 열심히 살면서 보낸 사집반, 모든 소임 일선에서 물러나 후배스님들의 생활에 조언을 하며 전각 기도와 경을 읽기 시작했던 사교반, 강원 학인의 최고참이 되어 후배스님들의 조언자가 되고 이제는 강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승가의 정식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중인 대교반이 되었다. 이제 통도사에서 행자기간을 포함해 5년간의 기간을 회향하게 되었다. 이 5년간 어른스님들을 대하는 것과 스님으로서 가져야 할 몸가짐, 마음가짐을 배웠고, 같이 수학하며 탁마琢磨해주고 앞으로도 함께해 줄 도반스님들을 만났고, 연꽃 밭에 연꽃이 여러모양으로 피고 크기와 높이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각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의 기준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기는 더 어려워서 아직도 헤메고 있으니 항상 경계할 일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시고 무사히 회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업시간에 배운 선시로 마무리 할까 한다.

枯草幣衣化作人(고초폐의화작인)한대
野獸山禽總疑眞(야수산금총의진)이라

짚단(마른풀)떨어진 옷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산 짐승들 새들 모두 진짜 사람인가 의심하네

荒年險世無憂客(황년험세무우객)이요
戰國徵兵漏籍民(전국징병루적민)이로다

흉년 들때에도 근심 없는 사람이요
전쟁이나 병사를 모집해도 호적에 없는 사람이라

態勢長時終似無(태세장시종사무)나
形容深夜更生新(형용심야갱생신)이라

기세는 없는 듯하지만
그 형용은 한 밤이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네

家牛有力兼明眼(가우유력겸명안)하니
直入田中喫偶身(직입전중끽우신)이로다

내 집에 소가 있는데 힘이 좋고 눈이 밝아서
밭 가운데로 바로 들어가 그 허수아비 먹어치우네

-경봉스님

우리 모두 힘좋고 눈 밝은 소가 되어 허수아비를 먹어치워야 할 것이다.
정진하고 정진하자.

월간 등불,
아름다운 법보시

월간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자랑입니다.

월간 등불을 법보시하는 일은
법공양의 실천입니다.

월간 등불을 후원하는 마음은
불법을 홍포하는 문서포교의 불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월간 '등불' 이 있습니다.

이달의 법보시 동참자

주지스님, 도문스님, 정안스님, 선본스님, 도안스님
무위스님(양산포교당), 정진스님, 성법스님, 부산 원오사
서일스님, 선다회 학생회, 선다회 사범회, 적멸도량회
통도사 포교사회, 불기청광회 회원 일동, 통도사 수련동문회,
염불공덕회, 템플봉사반, 사리탑봉사반, 바라밀다봉사회,
김현철, 최치민, 임성문, 김원일, 박중현, 최서윤(을미생), 박태영
김태윤, 최서윤, 내원사

매월 2만원 법보시 동참 바랍니다.(동참자 성함 게재해 드립니다)

月刊 등불

알려드립니다

'법공양 마당'

장소 : 불이문, 산중다원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 등불
이 '법공양 마당' 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경내에 마련된 등불 법공양 마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폭넓게 읽히는 월간 사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통도사 신도님들께 매월 배달되는 영축총림의 사보입니다. 월간 「등불」 편집실에서는 10년 이상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고 발행해 온 소식지의 1년 정기 구독료를 5천원 상향 조정하여 2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발송료와 제작비 등 많은 부분 물가 인상이 있어 부득이 내린 결정이오니,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독자 여러분들과 불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월간 「등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선원에 입방 희망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통도사 보살선원이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나은 정진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방자격 : 70세이하(여)
※70세 이상은 선원장 스님과 면담 후 결정
정진시간 : 하루 7시간
방 부 비 : 대실 90만원, 출퇴근 40만원(1인 1실 규정)
연 락 처 : 055-381-0977 보살선원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
있습니다.
스물 하고도 네 시간 더 부여되는 하루,
그 하루를 보냄에 당신은 여여하신지요?

득달같이 맞고 보낸다 할지라도
정중함 저버리지 않는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문을 밟기 전,
당신이 지닌 마음 자비였다면
그 산문 나가는 순간에도 자비이고
돌아가 앉는 시간에도 여전히
자비이기를 바라는 간절함 있습니다.

당신은 진여의 문을 향해 서 계십니까?
생멸의 문을 향해 서 계십니까?
불법을 만난 당신이라면
진여의 문을 향해 부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추위 속, 먼 길 떠난 오래 전 선사들
그들의 삶이 오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 역대 조사.
그리고 성해, 혜각, 벽안 노스님…
출가와 열반, 둘이 아니었듯
오늘을 사는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진여의 문을 향해 여래의 그 길을
올라야 합니다.

'공양'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회원 구독료 안내

1년 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20만원으로 평생 등불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안내 (예금주 : 통도사)

국민은행 666-01-0060-891
농　　협 813015-51-082016
신한은행 140-000-925706

우편접수

50501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 등불 편집실 앞 / 문의 : ☎ 055) 384-8380

※ 주소이전, 송금 온라인 등으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에는 겉봉투에 표기된 성명으로 해주십시오.
※ 우편물 배달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혹, 이사를 가시면 연락을 주시고 성금과 구독료 납부에 이상이 있으면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부처님께서는 법보시를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이나 군부대, 교도소, 학교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한 곳으로 영축총림 통도사가 발행하는 '등불' 보내기에 동참합시다.
※ 은행 입금분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혹, 누락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등불'은 등불가족 여러분들의 투고로 만들어지는 월간 소식지 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편집실 이야기

월간 등불은 34여 년의 전통을 지닌 영축총림 통도사의 사보寺報입니다.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여러 독자님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발행되는 불지종가를 대변하는 소식지입니다.
등불 가족 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맑고 아름다운 등불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등불 가족 여러분의 참여와 독려를 바랍니다.

참여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1년 연장)
정미란, 여옥명, 김중석, 박정, 박금자, 김인호, 여봉희, 안수걸, 김경희
소향진, 부산종합터미널, 배호열, 이순자, 윤금자, 이경화, 곽봉황
김민태

새로운 등불가족 되심을 축하드립니다(1년 신규)
홍진하, 곽이정

함께 하는 마음이 등불을 살찌웁니다(평생 회원)

영 축 총 림 통 도 사

보광선원 신축불사

영축총림의 보광선원은 통도사의 대표적 수행처입니다
그러나 수 백년을 지켜온 보광전 당우는 낡고 퇴락하였고 보궁기도와 법회로 인하여 정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도사는 방장 원명지종대종사의 원력과 사중의 뜻을 모아 정진에 진력할 수 있는 선원 건립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를 뽑는 선불장 불사에 동참하시어 총림의 당간을 높이 세우고 선풍을 일으키는 뜻깊은 일에 수희 동참 바랍니다.

불사문의

회계실 TEL. 055-382-7187, 종무소 TEL. 055-382-7182
화엄전 TEL. 055-381-1288 / FAX. 055-372-7010

동참 계좌번호

우체국 611434-01-002199(예금주 : 통도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합장

월간 등불. 2016년 2월 2일 발행 (통권411호) | 발행처.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전화 055) 384-8380 팩스 055) 382-7196